

경남고호

경상남도간호사회지 통권23호

권두시 | 겨울일기 | 박구경 **경남간호갤러리** | 서양화 | 김원순 **경남간호사** | 마르퀴즈 후즈 후 평생공로상 수상 | 이선미
유휴간호사 재취업 | 박지숙 **간호칼럼** | 2018년 간호정책 전망 | 송명환 **여행기** | 차쿠자쿠'먹고 싶은 떡방 여행, 동기와
함께라서 더 좋은 여행 | 김경민 **회원작품 맛보기** | 김승지 유선민 **현장의소리** | 심아름 구나영 남인 임성문 **간호사 Cheer
Up 참가후기** | 임성문 김나영 **간호저널** | 김은희 **제26회 학술발표회 논문초록** **경남간호인들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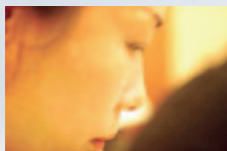


겨울일기

며칠째 사납게 춥고
 바람도 인심도 나머지도
 강 건너 가난한 나무들도 오래 춥다
 흙 냄새 짙은 바람벽과
 군불 지핀 방바닥서
 은은히 피어나던 연기
 물주전자 없힌 따스한 난로
 파르라니 머리 깎은 스님 친구
 야음이 야음을 타고
 도란도란도란
 창문에 와 등불로 흔들린다
 개 짖는 소리 멀고 가까웁게
 겨울나무이고 싶다
 추울 때 더 춥고
 추위보다 더 지독한

경남간호

경상남도간호사회지 통권23호



박구경 /1956년 경남 산청 원지에서 태어났으며, 10.26 당시 경남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중 해직 되었다. 1996년 『하동포구 기행』 등으로 작품 활동을 하였으며, 시집으로 『진료소가 있는 풍경』 『기차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국수를 닦은 이야기』 등이 있고, 한국작가회의 이사, 경남작가회의 회장 역임, <얼토> 동인으로 활동 중이며, <경남작가상>을 수상했다.

소통과 문화공간의 역할을 다하기를



이 경 옥
경남간호사회 회장

경상남도간호사회는 13,00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경남도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간호실현과 간호사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도 지난해 야간 전담간호사 수가 신설, 간호·간병료 수가와 방문간호 수가 인상, 장기요양기관의 간호사 채용 시 가산금 인상 등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 관련 수가 개선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권역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활성화하여 유휴간호사 재취업교육뿐만 아니라 재직 간호사를 위한 이직방지교육, 조직문화개선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간호사 수급 불균형과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부·울·경 권역센터의 취업자 수도 2015년 대비 97.3% 성장하였습니다.

본회에서도 올해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간호사 Cheer Up' 개최 외에 자긍심과 역량 개발을 위한 '회원역량개발사업'을 신설하여 진행한 도자기 공예가 큰 호응을 얻어 하반기에는 권역별로 지원금을 지원하여 많은 회원들에게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12월에 개최한 '초청강연회'는 소록도 성당 김연준 신부님을 모시고 일생을 소록도에서 헌신하신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희생과 봉사의 고귀한 삶에 대한 강연으로 참석한 모든 회원들에게 공감과 진정한 소통의 시간이 되어 무엇보다 감사하였습니다.

이제 임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서 지난 4년 동안 경남간호사회와 간호의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행하고 추진하였던 소중한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봅니다.

그중 1999년 홍보위원장으로서 『경남간호소식지』를 창간했던 경험으로, 일 년 동안 회원들의 활동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 『경남간호』로 재탄생시킴으로써 명실공히 그 장을 펼치게 되어 가슴 뿌듯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74년의 전통과 역사를 지닌 경남간호사회의 발전하는 모습과 회원들이 늘 새롭고 다양한 장을 펼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바라며, 『경남간호』 통권23호 발간을 위하여 애써주신 성명숙 홍보·편집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꿈꿀 수 있는 삶은 행복합니다!



정 순 자
중경회장

퇴직을 하고 마지막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젊은 시절 못해본 꿈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캄보디아 간호봉사를 시작하였고 4년을 마친 후 지금 한국생활은 낯설기만 합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6·70년도 생활수준이며, 기온이 높아 덥고 불편했지만 추운 겨울이 없어 살만한 곳입니다.

포이펫 돈보스코학교는 NGO 단체로 살레시오 수도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로 가난한 아이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수도 프놈펜을 가려면 10시간 버스를 타고 갈 정도로 먼 오지입니다. 전교생 460여 명,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기숙생 80여 명과 매일 생활을 하다 보면 세월가는 줄 모르고 지냅니다.

구강위생, 기생충예방, 성교육, 심폐소생술까지 교육하며 간질, 수직 감염된 HIV보균자까지 관리하고 돌봐야 하는 곳입니다. 도움을 주신 후원자들 덕분에 교육은 시청각으로 하고 체격검사와 시력 측정을 하여 안경도 맞춰줍니다. 창원시약사회의 후원으로 구충제 투약, 초등학생들에게는 영양제도 복용시키고 주말에는 기숙생들에게 간식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학생의 30% 정도에게 충치가 있어 올해는 창원에서 치과 선생님 세 분이 봉사를 하였고, 8월에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봉사를 하여 학생들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넘치는 현장은 간호의 손길을 늘 애타게 기다립니다.

나이가 더 들어 봉사를 언제까지 할지도 몰라 몇 년 후를 생각하며 간호대학 입학생 4년 전액 장학 기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재학생들에게는 진학의 동기도 부여하고, 졸업 후 간호사가 되어 보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제2의 꿈을 꿈꿉니다.

13,000여 명 회원을 이끌며 개인을 넘어 간호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꿈을 꾸는 경남간호사회 회장단과 이사들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간호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간호 리더들의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회원들의 정보제공자로서 『경남간호』 발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오늘의 경남간호사회가 있기까지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표지이야기
2017년 '간호사 Cheer Up' 개최
(안동 소목화당)

경남간호

경상남도간호사회지 통권23호

발행처/경남간호사회
발행인/이경옥
발행일/2017년 12월 31일
편집장/성명숙
편집위원/강선희, 권은시, 김은희, 손경희, 윤덕점,
이인숙, 김영란(사진)
주소/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3(오피스프라자)
경남간호 문의/055-262-6006
홈페이지/http://www.gsndnurse.or.kr/
비매품

제자 : 순원 윤영미(서예가)
• 대한민국전통미술대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 전연대상전 초대전(서울 백악미술관) 외 다수 전시
• 현) 순원서예원장

권두시 | 겨울일기 | 박구경

2 발간사 | 이경옥 | 경남간호사회 회장

3 격려사 | 정순자 | 증경회장

6 경남간호갤러리 | 서양화 | 김원순

경남간호人

8 마르퀴즈 후즈 후 평생공로상 수상
진주보건대학교 이선미 교수



12 유휴간호사 재취업
진해 늘푸른요양병원 박지숙 간호사



16 간호칼럼
2018년 간호정책 전망
대한간호협회 정책국 송명환 국장



여행기

20 '자쿠자쿠' 먹고 싶은 먹방 여행, 동기와 함께라서 더 좋은 여행 | 김정민

회원작품 맛보기

24 한국화 | 김승지

25 수필 | 분만요정의 분만실 이야기 | 유선민

현장의 소리

28 잊지 못할 그날! | 심아름

31 방향과 변화를 사랑하는 법 | 구나영

34 신규간호사가 신규간호사에게 | 남인

37 Care의 또 다른 이름 '간호사' | 임성문

2017년 「간호사 Cheer Up」 참가후기

40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 임성문

42 새로운 에너지로 재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김나영

간호저널

4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 인력 | 김은희

46 제26회 학술발표회 논문초록

경남간호인들의 동향

58 2017년 분회 주요소식

63 2017년 분회 주요소식

거제시간호사회·거창군간호사회·고성군간호사회·김해시간호사회·남해군간호사회
밀양시간호사회·사천시간호사회·양산시간호사회·진주시간호사회·창녕군간호사회
창원시간호사회·하동군간호사회·함안군간호사회·합천군간호사회

72 편집자 레터



가을 회상 /116.8×91cm, oil on canvas

●작가노트

나의 주변의 일상적이며 평범한 것들에 대해 경험하는 고단함, 분주함 속에서 휴식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화폭에 담고자 하였으며 여행자의 마음으로 고단한 일상을 보낸 이들의 안락하고 포근함을 전해주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이다.



새벽 /53×33.4cm, oil on canvas



벚꽃 /53×33.4cm, oil on canvas



김원순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김해시간호사회 이사 | 개인전 3회(김해 문화의전당, 부산경성 제1미술관), 초대작가전 20회 다수

진주보건대학교 이선미 교수가 마르퀴즈 후즈 후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2016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제33판에 등재,
 2017 알버트 넬슨 평생공로상(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수상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8 후즈 후 인 더 월드(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가 확정되었다.



2017 알버트 넬슨 평생공로상 수상

| 경남간호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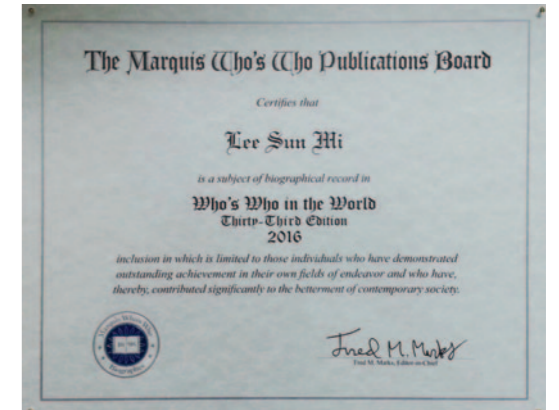
진주보건대학교 이선미 교수 마르퀴즈 후즈 후 평생공로상 수상

마르퀴즈 후즈 후 평생공로상은 세계 각국에서 의학, 과학, 사회, 예술,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평생을 바쳐 탁월한 업적을 세운 전문가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등재인들은 경력 및 상훈 사항, 사회의 기여도 등에 의해 선정된다. 약 130만 명의 세계 인물정보를 가진 '마르퀴즈 후즈 후'에는 한국인 약 3,000여 명이 등재돼 있다.

● 먼저 교수님께서 수상하신 상의 의미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마르퀴즈 후즈 후 평생공로상은 세계 각국에서 의학, 과학, 사회, 예술,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평생을 바쳐 탁월한 업적을 세운 전문가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는 110여 년의 역사와 엄격한 선정 기준을 갖춘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이다. 세계 3대 인명사전은 미국의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와 함께 미국인명정보기관(ABI,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



2016년 후즈 후 인 더 월드(Who's Who in the World) 제33판 등재 기념패

센터(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에서 발행하는 인명사전을 말한다. 이중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르퀴즈 후즈 후는 1899년에 문을 열어 매년 정치, 경제, 의학 등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둔 55,000명을 선정해 업적과 이력을 소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후즈 후 인 더 월드(Who's Who in the World)를 발간하고 있다. 마르퀴즈 후즈 후는 등재되는 이들의 선정 기준을 "참고 자료로서의 가치"에 따라 정한다고 밝히며,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등재인들은 경력 및 상훈 사항, 사회의 기여도 등에 의해 선정된다. 약 130만 명의 세계 인물정보를 가진 '마르퀴즈 후즈 후'에는 한국인 약 3,000여 명이 등재돼 있다.

● 교수님의 수상소감과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 마르퀴즈 후즈 후의 연락을 받은 것은 이메일을 통해서였다. 세계인명사전 등재 후보에 올랐으니 등재수락 요청과 함께 인적사항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달라는 연락이었고 그 이후 2016년 제33판 인명사전 등재와 2017년의 평생공로상 수상으로 연결되었다. 후즈 후 사(社)는 상세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나 경력 및 사회의 기여도와 문헌적 가치를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하니 그 어느 기준에는 부합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울'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연령대와 학문에서 상당한 비중이 있는 연구영역이라 생각한다. 아마도 이에 따른 긍정적인 간호학적 중재 관련 논문을 SCI급 저널에 발표한 것이 수상의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수상을 한다는 것은 무슨 상이나 매우 기쁘겠지만 특히 연구자로서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고 생각하니 감사함과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수상을 발판 삼아 앞으로 주어진 나의 자리에서 나의 역할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며, 간호학문의 발전과 학교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다.

● 간호학과 학생들과 간호사에게 강조하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태도(attitude, 態度)가 인생을 결정한다”

태도란 어떤 대상이나 자극에 대해 일관성 있게 지각하고 반응하려는 심리적 경향으로 놓여진 상황과 관계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전문성, 창의성, 인성’을 갖춘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더욱 가치 있도록’ 순간순간 자신을 업데이트(update) 하고 “든사람 보다 난사람, 난사람 보다 된사람”을 지향하며, 더욱 발전되고 있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견해가 중요한 것 같다.

● 교수님의 향후 계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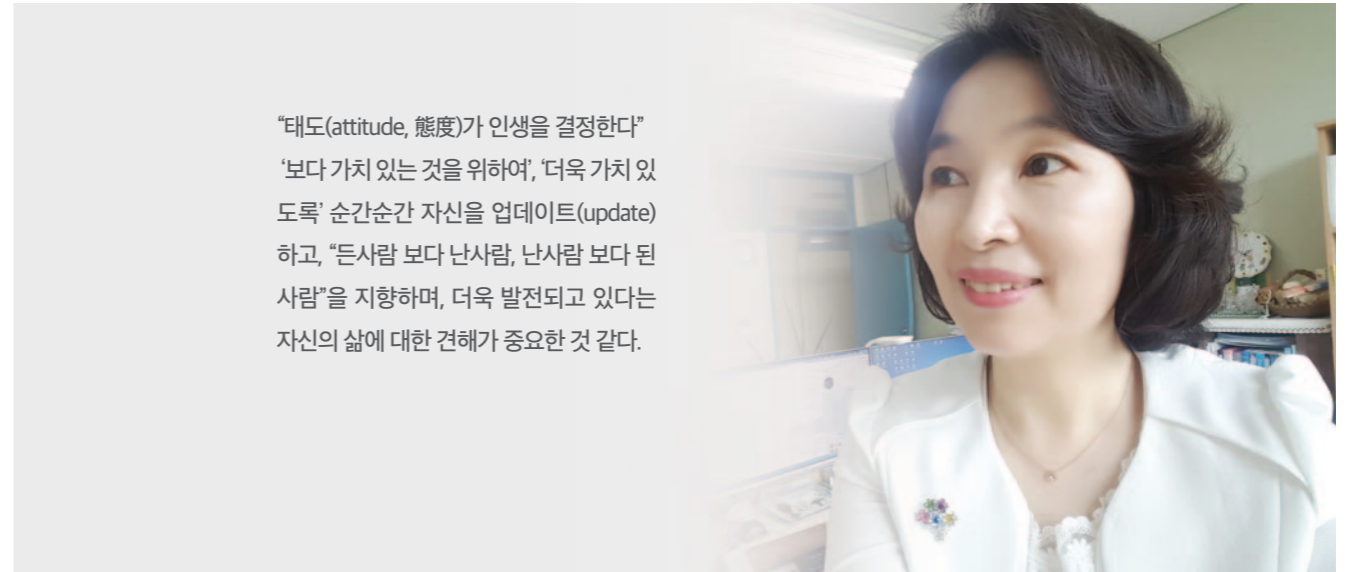
‘BioMedLib’은 수천만 개의 생의학 관련 문헌 가운데 분야별로 우수한 논문을 매월 선정 발표하고 있는데, 음악요법이 우울을 겪는 산모의 산후우울과 모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논문으로 미국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의학도서관 생의학 데이터베이스 검색엔진(BioMedLib) 분야에서 Top10 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한 논문은 개인이 선호하는 음악을 사용하여 산후우울을 겪는 산모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모아애착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입증한 것이다. 우울을 겪는 다양한 대상자에게 음악을 사용하는 중재요법의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특히 간호학의 다양한 중재요법 중 마사지 등의 간호기술영역 관련 연구, 보완대체요법과 생리적 변수를 다룬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지도학생들과



지도학생들이 한마디씩~



“태도(attitude, 態度)가 인생을 결정한다”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더욱 가치 있도록’ 순간순간 자신을 업데이트(update) 하고, “든사람 보다 난사람, 난사람 보다 된 사람”을 지향하며, 더욱 발전되고 있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견해가 중요한 것 같다.

연구실에서

향후 연구의 주관심영역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중재와 질병중심·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간호중재를 지향하며 계획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못 다하신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21세기에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간호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특히 더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술은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래에는 사용자가 상상해보지 못한 경험과 서비스가 제시될 것이 확실하다. 간호기술영역과 건강교육영역 관련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기술과 사용자의 접점을 찾아 가능성을 발굴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간호기술영역과 건강교육영역 관련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간호가 어떤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할 것이다.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한 저를 소개하고자 제안해 주신 것과 지금까지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글. 이인숙/편집위원

삶은 표정 없는 환자들, 감사함을 모르는 환자와 보호자들이지만
 고운 얼굴로 물들어보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순간순간 마음 한구석이 스스로 무너져버린 적도 많다.
 그때마다 힘겨울 때 늘 응원해주신 간호협회취업센터 유휴간호사들의 엄마 같은 김미현 센터장님과
 유휴간호사들의 입장에서 이직과 퇴사를 막기 위해 마련한 멘토단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경남간호人|

유휴간호사 재취업

간호인력 취업센터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재도전의 의지를 가져...

박지숙/진해 늘푸른요양병원 간호사

내가 맘먹고 도전한 일에 내가 자존감을 지키자. 어디서든 떠날 때 아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나의 지론! 아직은 취업 성공기를 쓰기는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이다.

...

다시 간호전문인력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계기는 2016년 간호인력취업센터의 지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간호협회 산하 간호인력취업센터에서 “부산, 경남, 울산 RN들이여 Job을 가져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력단절 유휴간호사들의 재취업목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그 기회를 잡은 것이 지금의 전문 인력으로 재도약 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

당시 취업센터의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보수교육을 받고 2주간의 요양병원 임상 실습을 마치고 재취업에 도전하여 임상으로 돌아갔다. 비교적 길지 않게 작성된 이력서를 보아하니 사회가 바라보는 58세 나이와 그간 간호경력과는 무관한 일상생활 속에 단절된 유휴 8년이 스스로를 위축되게 하였다.

사회적인 조건은 조금 부족했지만 과거에 전문인력으로 일할 때 꼼꼼하고 책임감 있었던 것을 회상하며, 면접을 보게 된 ‘진해 늘푸른요양병원’에서 간호과장님이 나에게 했던 말은 큰 용기가 되었다. “선생님의 나이보다 어리고 밝고 맑은 이미지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용기를 내라는 격려의 말이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다만, 병동 3교대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내가 누린 일상인 유휴 8년 동안 연극과 합창을 배우며 이런저런 공연무대를 즐긴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조금 망설여졌고, 그동안 자유와 여유를 누릴 만큼 누렸으니 도전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함께 들었다. 이제부터 축제가 아닌 숙제 하듯 보내야 하는 생각으로 갈등이 일어 망설여진 것이다.

다행히 면접 후 20여 일간의 개인적인 시간이 허락되어 일정에 있던 공연 스케줄을 마무리 하고 2016년 11월 21일 첫 출근을 했다. 배려를 받은 시간 동안 그동안의 발자취도 되돌아보고, 앞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정리가 되었던 것 같다.

...

늘푸른요양병원에서의 첫 출근은 두 가지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다.

첫째는, 간호과장님의 환자 대하는 모습인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휠체어 탄 환자분이 내릴 때 엉거주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드리는 내 모습에 비해 과장님은 무릎을 구부려 휠체어를 밀면서 물리치료실로 안내하는 모습, 또 하나는 병동회진 시 누워있는 환자의 머리를 맨손으로 두 갈래로 묶어 예쁘게 만져드리니 환자의 웃는 모습에 흐뭇해하고, 병원장님이 일일이 허리 굽혀 침상 곁에 벗어둔 환자의 실내화를 돌려놓는 모습들이 몽클함으로 다가왔다. 이 모두는 무엇보다도 환자의 안전을 위한 일이고 따스한 마음을 전하는 눈높이 케어의 실천이라 여겨졌다. 내가 선택한 이 병원에 내가 매긴 점수는 만점을 주게 되었고,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려는 내 마음가짐 또한 ‘기슴에는 사랑, 얼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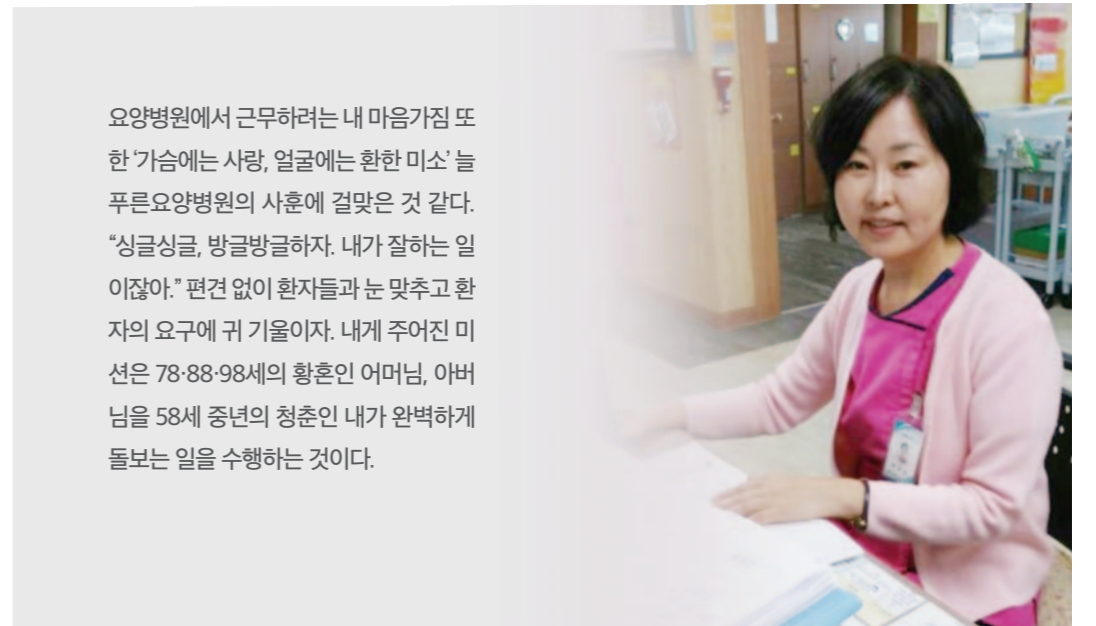
업무를 보는 중에 찰칵

는 환한 미소'라는 늘푸른요양병원의 사훈에 걸맞은 것 같았다. “싱글싱글, 방글방글하자. 내가 잘하는 일이잖아.” 편견 없이 환자들과 눈 맞추고 환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자. 내게 주어진 미션은 78·88·98세의 황혼인 어머니님, 아버님을 58세 중년의 청춘인 내가 완벽하게 돌보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50여 명의 환자 대부분은 평균연령 80세를 훌쩍 넘긴 분들이다. 빼곡한 진단명에 당뇨, 고혈압, 치매는 공통분모이며, 오히려 교집합이란 단어가 적절하다. 아집도 가지가지, 공격적인 성향도 가지가지, 요구조건도 가지가지, 인지장애로 똥까지 던지며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병동의 24시간은 드라마틱하다. 이럴 때 일수록 지혜롭게 중재를 해야 한다. 오랜 병원 생활로 심신이 나약해지고 황폐화되어 있어 가족이 돌보는 것은 힘든 전인간호가 필요한 분들이다. 내게 맡겨진 환자는 어린이집 아이고 난 간호사에 보육교사라고 맘 먹어야 한다. 어르고 달래서 밥을 먹여드리고, 약을 먹여드리고, 기저귀를 봐줘야 한다.

...

이러한 모습을 볼 때는 만감이 교차한다. 내가 두 아이 키워낸 선수시절로 돌아가 잘 해낸 일을 즐겁게 하자. 내가 가진 많은 에너지와 사랑을 눈치챌 수 있게 아낌없이 나누자. 근무 중 환자의 콜벨에는 초속으로 달려가서 요구상황을 해결하자. 이들의 청보리 같은 풋풋한 젊은 날은 자식 위해 열심히 헌신하며 일하셨을 텐데... 이분들의 모습에서 요양병원에 계신 구순의 내 어머니님의 모습이 오버랩 되어 눈시울을 적신 적이 많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려는 내 마음가짐 또한 '가슴에는 사랑, 얼굴에는 환한 미소' 늘푸른요양병원의 사훈에 걸맞은 것 같다. “싱글싱글, 방글방글하자. 내가 잘하는 일이잖아.” 편견 없이 환자들과 눈 맞추고 환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자. 내게 주어진 미션은 78·88·98세의 황혼인 어머니님, 아버님을 58세 중년의 청춘인 내가 완벽하게 돌보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

싫은 표정 없는 환자들, 감사함을 모르는 환자와 보호자들이지만 고운 얼굴로 물들여보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순간순간 마음 한구석이 스스로 무너져버린 적도 많다. 그때마다 힘겨울 때 늘 응원해주신 간호협회취업센터 유희간호사들의 엄마 같은 김미현 센터장님과 유희간호사들의 입장에서 이직과 퇴사를 막기 위해 마련한 멘토단 역할이 컸다고 생각되고 이 수기를 통해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고충상담을 위해 임상경험이 풍부한 간호과장님, 부장님 등과의 1:1 맞춤 고충상담도 오기로 버티며 임상을 지킬 수 있었던 일이다.

나의 멘토가 되어준 전진선 간호과장님이 나의 자질구레한 녀두리에 귀 기울여주고 함께 고민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주신 덕분에 이제 나도 귀한 요양병원 일 년 경력을 쌓았다. 군대 왔다 생각하고 삼년을 불평 없이 복종하자는 첫 맘을 다잡으면서 내가 맘먹고 도전한 일에 내가 자존감을 지키자. 어디서든 떠날 때 아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나의 지론! 아직은 취업 성공기를 쓰기는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이다. 진행과정에 스스로 만족한 점수를 받으려는 난 오늘도 고군분투 중~



송명환
대한간호협회 정책국 국장

2018년 간호정책 전망

대한간호협회가 간호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간호사 회원들이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간호의 미래는 분명 밝다고 생각한다. 이 시대가 간호사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상투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간호계는 올해도 다사다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대선 과정과 새 정부 출범과정에서 정부 국정과제에 간호 관련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 간호인력 재취업 활성화, 방문건강관리 수행 간호직 공무원 확충 등 다양한 간호 관련 국정과제를 이끌어 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는 간호사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 간호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 적극 이슈화하고 대응하였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건강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최근 사회 분위기도 있었지만 특히 2017년 하반기에는 간호사와 관련하여 연일 근무환경과 처우, 인력 수급, 인권침해 등 다양한 이슈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거의 매일 포털사이트 메인에 간호 관련 기사가 등장하다시피 하였다. 간호사의 아픈 현실이 보도될 때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러한 사회 이슈화는 한편으로는 정책 실현을 위한 기회의 창이 되기 때문에 매우 반갑기도 하였다. 실제로 정부 발표가 임박한 간호인력 수급 대책 등에는 올해 이슈화되었던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등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2018년 간호 관련 정책의 흐름과 방향을 간단히 살펴보고 전망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인력 수급 문제의 지속.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이슈로 등장한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때문이다. 그러나 매년 신규간호사가 2만여 명 이상 배출되고,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 5.4년,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34%인 현실에서 대한간호협회는 단순한 양적 증가 정책(간호대학 정원 확대)을 반대해왔다. 정부가 곧 발표할 간호인력 수급 대책에서 간호대학 정원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배출은 2022년 이후이므로 5년 이내의 간호사 공급에 큰 변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는 신규간호사 이직 방지와 사실상 정원 확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유휴간호사 재취업에 정책목표가 집중되어야 하고 정부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3대 비급여 해소 방안의 하나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서비스의 형태, 인력구성, 근무여건, 간호교육, 간호수가 등 간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임과 동시

에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으로서 임상 현장은 물론 간호교육 과정도 이를 대비하여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협회로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과정에서 국민에게 가장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과 동시에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셋째, 간호사 인권 및 근무환경 이슈의 지속.

모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선정적인 춤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간호사의 지속 근무를 저해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대 중점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갑질 문화의 청산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병원 간호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충하였고 2018년에 병원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지표에 이러한 인권침해와 근로환경 문제를 반영할 것으로 보이며, 각 의료기관은 노무 및 법률 자문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 정비 및 인권침해 사례 방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지역사회 간호인력의 중요성 증대.

정부는 국정과제로 간호사 등 지역사회 방문보건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비록 2018년 예산에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으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에서도 간호사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전문병원의 중요 인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2017년 대한간호협회가 보건의료연구원과 MOU를 통해 진행했던 「재가환자 대상 IT 활용 방문간호」사업도 계속된다. 선진국들이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제공체계를 변화시킨 것처럼 노인인구와 노인진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도 조만간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그때에는 방문간호사 등 지역사회 간호인력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대비가 필요하다.

올해 대한간호협회 중요 정책 성과 중 하나는 간호관리료 제도 개선이다. 협회에서 10년 가까이 주장했던 내용이 이제야 반영되었는데 지방 중소병원에 우선하여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병상 수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바꾸고 이에 따른 수익증가분을 간호사 고용과 처우 개선에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협회가 이와 같이 간호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간호사 회원들이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간호의 미래는 분명 밝다고 생각한다. 이 시대가 간호사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방향 속에서 우리 간호사 회원들 개개인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나아지기까지 협회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 새해에도 간호계가 한걸음 더 진보하고 간호사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간호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디즈니랜드

여행기

‘자쿠자쿠’ 먹고 싶은 먹방 여행, 동기와 함께라서 더 좋은 여행

김경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사

잠옷과 우비, 여행 가서 충동적으로 구매한 우정링과 캐릭터 머리띠를 보면 도쿄 여행의 시간이 떠오르고 다시 여행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일하면서 팀워크가 쌓여왔던 것인지 조금의 트러블도 없이 우리의 여행은 아주 쿵짝이 잘 맞는 여행이었다.

여행은 언제나 설렘이 가득한 것이지만, 올해 여행은 조금은 더 설레고 특별한 여행이었다.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만나게 된 동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지 벌써 4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근무 스케줄 탓에 함께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다.

올해는 수간호사 선생님의 배려로 다 함께 도쿄로 동기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많은 나라 중에 일본 도쿄를 가게 된 이유는 간단했다. 작년에 SNS를 통해 도쿄에서 파는 루크스 랍스터 샌드위치 사진을 우연히 보고 너무 먹음직스러워 이후 언젠가 꼭 먹으러 가보자고 다짐을 했었고 마침 이번에 기회가 생겨 조금의 고민도 없이 여행계획이 정해졌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여행테마는 ‘먹방 여행’이었다. 2박 3일 일정을 계획 할 때에도 맛집 위주로 동선을 정하고 하루에 1kg씩 살찌우자는 마음으로 갔었다. 물론 여행을 다녀온 뒤 무척 후회했었다. 진짜 3kg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의 여행 1일 차 일정은 도쿄 시내를 돌아다니며 먹킷리스트를 달성하는 것이었는데 기대했던 랍스터 샌드위치는 실망이었지만 한국에서도 유명한 ‘썩썩버거’와 슈크림이 들어있는 디저트 ‘자쿠자쿠’는 정말 맛있었다.



루크스랍스터 샌드위치



디즈니랜드

먹방여행 둘째날

2일 차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디즈니랜드로 갔었는데 도쿄에는 Disneyland와 Disney Sea 두 군데 중에 한 곳에만 입장할 수 있어 스틸 있는 놀이기구들이 있는 Disney Sea로 갔었다. 놀이기구를 타기 위한 대기시간이 길었지만 규모가 커서 볼거리도 많았고 난생처음 귀여운 캐릭터 머리띠를 다 같이 하고 롤루랄라 신나게 돌아다녔다.

서 튀겨 먹는 곳이다. 직접 만들어 먹어서 재미도 있고 맛도 있어서 끊임없이 먹었는데 쿠시카츠를 먹고 나서 나무막대를 버리는 통이 꽉 차서 들어가지 않아 주변에 차곡차곡 쌓일 정도로 먹었다.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 나서 떠나기 전 기념으로 일본에서만 찍을 수 있는 눈이 3배 이상 커지며 가름해지는 마법의 스티커 사진을 기념으로 찍고 여행을 마무리하였다.



도쿄여행 마지막 날을 추억하며 스티커 사진



2박 3일 여행 중 동기 아이템을 맞춘 것이 있는데 여행 떠나기 전 준비한 잠옷과 우비, 여행 가서 충동적으로 구매한 우정링과 캐릭터 머리띠이다. 여행을 다녀온 지금도 아이템들을 보면 도쿄 여행의 시간이 떠오르고 다시 여행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자쿠자쿠' 무한리필 튀김꼬치 먹으러 갔던 날



동기들과 맞춘 잠옷



동기들과 맞춘 우정링



숙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공항가는 길에서 우비샷

먹방여행 셋째날

마지막 3일 차에는 오다이바로 갈 계획이었으나 비가 온 탓에 다른 곳을 찾던 중에 오타쿠들의 성지라 불리는 아키하바라로 갔었다. 사실 아키하바라로 간 우리들의 목적은 쿠시카츠(튀김꼬치)를 무제한 먹을 수 있는 뷔페가 있기 때문이다. '쿠시아모노가타리'라는 곳인데 원래는 재료로 직접 튀김옷을 입혀

평소 잘 지내더라도 여행을 가게 되면 작은 트러블이나 의견조합이 맞지 않아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는데 일하면서 팀워크가 쌓여왔던 것인지 조금의 트러블도 없이 우리의 여행은 아주 쿵짝이 잘 맞는 여행이었다.



산사의 후원 /100호, 2017 경남미술대전 한국화부문 입선

●작가노트

지난가을 하동의 작은 절 후원의 오래 되어 바래진 벽화를 보고 영감을 받아 그린 그림.



김승지 사천시보건소 정동면 소곡보건진료소
2017년 개천미술대전 입선, 2017년 경상남도미술대전 입선



유선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사



분만요정의 분만실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분만실에서 근무 중인 (자칭)분만요정 유선민이라고 합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분만실은 총 14개의 산모 병상과 2개의 병상이 있는 정상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내 이름 팔아라!”라고 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저희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언제나 저희편이 되어 주는 천하무적 수선생님, 그리고 9명의 개성 충만하고 따뜻한 간호사들이 함께 3년째 동고동락하며 울고 웃으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분만실은 흔히 생명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평화로운 곳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근무하는 이곳은 언제 어떤 환자가 밀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외과병동에서 맹장수술을 하고 회복 중이던 산모가 “애기가 나올 것 같아요!”라고 급박한 소리를 내지르며 우당탕탕 침대를 밀고 분만장에 들어오자마자 애기를 (말 그대로) 발사하기도 하며, 또 어떤 분은 집에서 피를 엄청나게 쏟으며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와서 급하게 수술을 준비해서 수술실로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잘 지내던 산모가 갑자기 배가 이상하다고 해서 내진해보니 자궁경부가 다 열려서 부라부라 진통실로 옮기고 분만 진행했던 일도 있었으며, 당직의는 1명인데 2명의 산모가 동시에 분만을 진행해야 했던 치열한 주말도 있었습니다. 정상아의 정해진 침상 수는 2개인데 8명이 넘게 태



어나고, 더 이상 비어있는 자리도 없는데 진통 환자가 입원해서 간이 침대에서 분만을 진행할 때...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바빠서 의자에 한 번 앉지도 못하고 툭툭 부은 다리로 하루 종일 뛰어다닐 때면 담당의의 “입원지시 났습니다.”라고 하는 한 마디가, 아직도 마칠 생각을 하지 않는 교수님의 외레가, 자리 있냐며 전화 오는 상냥한 외레 간호사의 전화벨 소리가 그렇게 야속하고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분명 저출산 국가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나라에서 거짓말하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생각이 들 때마다 따뜻하게 다독여 주시는 선생님들과 항상 함께여서 지금까지 잘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그동안 제 병원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명이 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환자는 다음 날 제왕절개 수술을 앞두고 담당의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보호자와 함께 웃는 얼굴로 내일 태어날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설렘과 기쁨으로 한껏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규 업무 시간이 돼서 “아기 소리 좀 들어 볼게요.” 하고 도플러 청진기로 태아 심박동수를 들으러 갔는데 분명 아기가 있던 위치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기들은 뱃속에서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하고 열심히 아기 위치를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온 배를 다 청진해도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기계 고장일까 다른 도플러 청진기로 바꿔보기도 하고, 머리맡에 있는 NST 기계를 작동해서 찾아보기도 했지만 모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산모의 배는 어느덧 초음파 젤이 모든 배에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저는 땀이 비 오듯 흘렸습니다. 차마 산모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산모가 정리하고 있던 알록달록한 아기 내복이며, 양말, 손수건 등에만 눈을 두며 ‘에이 아니겠지, 내가 아기를 못 찾아서 그런 걸 거야.’ 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결국 몇 번 더 시도해 보았지만 태아 심박동수는 들을 수 없었고 같이 일하던 선임 간호사에게 가서 조용히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아기 심장소리를 못 찾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도플러 청진기를 들고 병실로 들어갔던 선임 간호사는 어두운 얼굴로 나오며 저를 향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이어 담당의가 초음파를 보고 자궁 내 태아 사망으로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10달이나 건강하게 품고 있었던 아이를 분만을 하루 앞두고 떠나보낸 엄마

의 마음을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소리 내서 울지도 못하고 빨개진 눈으로 울음을 삼키던 모습에, 아기 옷을 담은 봉투를 꼭 잡은 떨리는 손에, 아무 말 없이 질끈 눈을 감는 보호자의 모습에 저까지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산모가 종종 생각나곤 합니다. 그 이후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시 예쁜 아기가 찾아와 건강하게 분만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라봅니다.

입사한 지 이제 겨우 3년이지만 가끔은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입사 후 처음 퇴원 설문지에 친절간호사로 제 이름이 적혀서 신나게 부모님, 교수님,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저를 떠올려봅니다. 또, 처음 정맥주사에 성공하고 뿔뿔이 기뻐하며 간호사 처치실로 향하던 제 모습, 덕분에 잘 있다 간다며 감사하다며 웃으며 퇴원하는 환자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다시 한번 파이팅을 다짐합니다.

입사 전 병원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면접관에게 “환자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목표를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과연 잘 실천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환자 개개인이 아닌 ‘Preeclampsia 환자, 2-1자리 환자, 어제 분만한 분’으로만 환자를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비뿔을 방패 삼아 환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조금은 소홀한 적도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분만실에서 때때로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처음 입사할 때의 기대와 설렘을 항상 가슴속에 간직하며 언제나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싱글벙글 활기 넘치는 분만요정이 되고 싶습니다.



잊지 못할 그날!

심아름 / 거제 대우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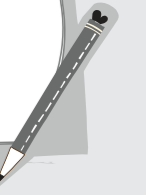
잊지 못할 그날! 2015년 12월 14일! 새벽 1시경! 환자들이 깊이 잠든 시간!

나는 여느 나이트 근무 때와 다름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약간의 타는 냄새가 난다 생각하고 1층으로 내려가 보았는데, 본관건물 지하에서 연기가 조금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원무 당직실로 급히 들어가 기계실로 전화를 하고 난 후 바로 나의 근무지인 6층으로 올라와 주임간호사님께 말씀드렸다. 곧바로 긴급화재방송이 흘러나오고 그때부터 상황은 그야말로 급박하게 돌아갔다. 근무자는 주임선생님과 나, 단둘뿐 환자는 40여 명, 눈앞이 캄캄했지만, 올해 받았던 소방교육을 떠올리며 주임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환자들을 우선 안정시키고, 지시에 따를 것을 당부한 다음 환자 이동을 준비했다.



우선 화재의 발생지가 건너편 건물 지하라는 것을 파악했고, 스스로 움직이는 환자, 휠체어 타야 할 환자, 침대로 움직여야 하는 환자, 산소가 필요한 환자 분류를 재빨리 마치고 어디로 대피시킬지를 생각했다. 당시 우리병동은 병원에서 가장 높은 6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옥상이 위에 있었으며 2층에 옥외로 빠져나가는 문이 있었다. 걸어갈 수 있는 환자들은 거즈를 물에 적서 입을 막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내 병원 근처에 있는 직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고 간호사들이 부족한 이 시점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고 기대가 큰지 모른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보람도 있지만 아픈 환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직종이니만큼 업무 소진율과 직무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거기다 간호사들을 무시하는 의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간호는 "이직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수선생님과 선·후배 간호사 그리고 동기의 격려에 힘입어 그 생각을 지우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



원들이 속속들이 도착하여 환자들의 이동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소방차가 바로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으며 일부 소방관의 지휘 아래 휠체어 탄 환자와 침대로 옮겨야 하는 환자는 옥상으로 이동시켰다.

12월의 추운 날씨에 환자들은 추위에 떨었고 우리는 담요와 이불을 총동원하여 환자들의 보온에 신경을 썼다. 또한 불안해하는 환자들을 끊임없이 안심시키며 구조를 기다렸다. 혹시 병동에 남아 있는 환자가 없는지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기는 했으나 기침은 나고 텅빈 병실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옥상으로 올라가 다시 환자들을 돌보는 데 전념했다. 잠시 후 소방대원의 설명에 따르면 불길은 기계실 직원이 초기 대응을 잘해 거의 진압된 상태로 본인들이 도착했을 때는 남은 불씨만 진압을 했다하였고, 건물 내에 남아있는 연기가 있기 때문에 병실로 복귀가 힘들어 화재와 상관없는 건강증진센터 건물로 환자들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걸어 나갔던 환자들은 이미 그 건물로 가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화재 소식이 전해지고 간호부장님, 팀장님, 수간호사님들뿐 아니라 다른 부서 직원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 정말 많은 직원들이 병원에 도착했다. 한밤중에 병원 걱정에 한걸음에 달려 나온 직원들이 고마웠다.

그때부터 대대적인 이동이 시작되었다. 1층 응급실을 통해 밖으로 나가서 신관건물로 가니 이미 많은 수의 환자들을 각 병동 간호사들이 돌보고 있었다. 우리도 환자 명단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하며 빠진 환자분들을 관리했다. 만나는 간호사들마다 머리는 산발에 얼굴은 초췌한 모습으로 그래도 서로 수고한다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고, 환자들도 서로 위로하며 양보하며 힘든 시간

을 잘 견뎌주었다. 그 모습이 몽클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 몸은 힘들었지만 힘든 줄 모르고 일했다. 그렇게 2시간여 뒤 병동으로 복귀해도 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고 다시 대이동을 통해 환자들과 함께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으로 병실로 돌아왔다.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고 의자에 앉아 마스크를 벗었다. 간호사 선생님과 병원 직원분들 몇 분들과 나란히 둘러 앉아있었는데 다들 나의 얼굴을 보고 크게 웃으셨다. “왜 웃는 거지?” 했는데 알고 보니 내 얼굴에 그을음으로 인해 생긴 검은 수염 때문이었다. 나도 크게 한번 웃었다. 정말 공포스러웠지만 뿌듯했던 몇 시간의 마무리 같은 그런 웃음이었다. 그때의 나에겐 정말 꿈만 같던 현실이 지금은 이렇게 추억이 되었고 정말 큰 경험이 되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아찔했던 그런 경험은 안 하는 것이 최고인 듯하다. 이후 우리 병원은 소방교육에 더더욱 철저히 임하고 있으며 간혹 비상벨 오작동이라도 있으면 환자들이나 직원들이 놀라서 밖으로 나오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어느덧 3년 차 간호사가 되어 있는 지금 경남간호사회에서 주관하는 ‘Cheer Up’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여 조심스레 관심을 가지며 응모하게 되었다. 최근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 간호사들이 부족한 이 시점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척한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고 기대가 큰지 모른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보람도 있지만 아픈 환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직종이니만큼 업무 소진율과 직무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거기다 간호사들을 무시하는 의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간혹은 “이직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수선생님과 선·후배 간호사 그리고 동기의 격려에 힘입어 그 생각을 지우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난 후 힘을 얻어 나도 다른 간호사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방황과 변화를 사랑하는 법

구나영 / 삼성창원병원



학생간호사 시절부터 사랑과 배려를 전하는 현장 간호사가 되길 온 마음으로 꿈꾸며 기다려왔습니다. 그에 따라 전문 직업인으로서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는, 이타적이며 친절한 자신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열정만 가득했던 제게 신생아 중환자실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임상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아이들을 돌본다는 기대감과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보다는 삼교대라는 낯선 근무 환경, 생명을 다루는 급박한

상황들이 반복될 때마다 나의 일을 충실히 해낸다는 기분보다는 매 순간을 겨우 견디고 있다는 생각만이 들기도 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러한 과정을 조금씩 견뎌가던 중 점차 변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

습니다. 신규였던 저를 항상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던 수선생님은 특유의 눈썹미로 제 성향을 파악하여 보호자들과 소통이 많은 신생아실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아이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참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성향에 맞는 업무로 전향 후 매우 만족하며 다니게 되었고 수선생님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저는 다시 업무에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 제 작은 설명에도 귀 기울여주시고 작은 친절에도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시는 보호자분들에게 제가 오히려 더 감사했으며, 다시 제 업무에 대해 보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 진땀나게 하는 보호자분들도 계셨지만 보호자분들과 겪은 많은 상황들로 자연스럽게 저는 학생간호사 시절 제가 기대하던 이타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또 잠시 잊고 있었던 취미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그림 솜씨를 잊지 않고 기억해준 동기와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아청소년과를 대표하여 어린이날 등의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재능을 아이들을 위해 나눌 수 있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힘들기만 했던 임상 생활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저는 간호사의 업무를 하면서도 즐겁게 취미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매 근무마다 함께 제 어깨의 짐을 덜어주는 동기들과 애



여러분도 제가 그랬듯이 앞으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간호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날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간호한 환자가 건강을 되찾을 때의 행복은 힘들었던 만큼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신규 간호사라서 실수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 일을 잘 몰라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부분의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차차 배워나가는 것이고 나는 더 능력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간호사가 되어 갈 것 이라는 기대와 자신감을 가지길 바랍니다.

정 있게 지켜봐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항상 저를 믿어주시는 부모님까지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지만 제가 아직 임상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제가 그랬듯이 앞으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간호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날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간호한 환자가 건강을 되찾을 때의 행복은 힘들었던 만큼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신규 간호사라서 실수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 일을 잘 몰라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부분의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차차 배워나가는 것이고 나는 더 능력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간호사가 되어 갈 것 이라는 기대와 자신감을 가지길 바랍니다. 어디서나 일을 하는 사람, 전문 직업인의 자세란 '힘들 속에서도 자아실현을 찾고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신규 선생님들, 또 간호사 선생님들 Cheer Up 입니다!

신규간호사가 신규간호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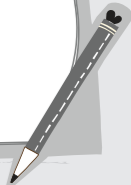
남인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남인입니다.

약 1년 전 저는 이곳에서 간호사로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당시 업무를 배정받고 처음 응급의료센터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침대에 누워 검사를 위해 이동하는 환자, 몸에 수많은 장비가 연결된 환자, 그리고 그 곁에서 걱정스러운 모습의 보호자, 설 새 없이 울리는 장비들의 알람, 정신없이 움직이는 응급의료센터의 인력 등을 보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간호사 선생님과 선배간호사 선생님과 인사 그리고 첫걸음을 내딛는 저를 담당하여 많은 것을 알려 주실 프리셉터 선생님과 만남이 압도적이었던 응급의료센터에서의 첫 장면입니다.

이곳 응급의료센터의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 사정, 심폐소생술, 시술 및 수술 준비, 활력징후 측정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업무가 익히기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중에서도 저에게 처음으로 좌절감을 안겨준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정맥주사입니다. 간호학과 학생 실습 때는 그렇게도 설레고 재미있게 했던 정맥주사가 이곳에서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얼마나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실제 환자에게 한다는 부담감과 나를 지켜보는 수많은 시선에서 느껴지는 압박감 때문이었겠지요. 결국에는 그 부담감과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한 저는 열흘 남짓 수십 번의 도전에도 열 손가락에 꼽을 만큼의 성공률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대로는 앞으로 몇 번을 더해도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선배간호사 선생님이 하는 것을 보고 또 선생님 각각의 노하우를 들으며 수정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연속된 성공적인 정맥주사로 자신감을 얻고 정맥 찾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애썼다면 더 오래 걸렸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해내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어디선가 지난날의 제 모습을 하고 있을 신규간호사 선생님.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규간호사의 시절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와 진실된 마음으로 간호사로서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길 바랍니다. 지금의 시간을 거쳐 훗날 신규간호사의 길을 걷게 될 후배간호사에게 여러분이 꿈꿔왔던 그리고 존경받는 선배간호사가 되어있길 바랍니다.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간호사 선생님들 덕분에 빠르게 또 정확하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분이 여럿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프리셉터 선생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라면 누구나 입사하기 전 임상에서 처음 일하게 된 간호사의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 듣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험악한 분위기나 무서운 선생님의 이야기일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머릿속에 무서운 이미지를 그려놓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순간 그 이미지들은 사라졌습니다. 프리셉터 선생님도 제가 처음 담당하게 된 신규간호사라며 자신도 가르치는 것은 부족할 수 있다며 함께 잘해보자는 첫인사와 함께 반갑게 맞아주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몇 달간 저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따로 시간을 내어 교육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어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들으며 간호사 인생의 첫 순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간호학과 학생 시절에 제가 간호사가 된다면 환자의 마음을 읽고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다짐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환경, 밀려드는 환자와 그에 따른 처치,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환자, 이런저런 항의를 하는 보호자 등 이곳에서는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자주 겪었던 상황 중 하나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긴박한 처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한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가 자신에게는 별다른 처치를 해주지 않는다며 항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처음의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여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그럴 시간에 빠르게 처치를 끝낸 다음 항의하는 환자의 처치를 해드리는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별다른 설명 없이 업무를 하였고 환자의 불만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처음처럼 계속해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 밀리게 되는 업무 앞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초심도 열어지게 되더군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모습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벌써부터 이래도 되는 건지 아니면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던 생각이 임상을 모르던 풋내기가 하던 철없는 생각이었는지 신규간호사로서 헛갈리기도 했습니다.

학생에서 간호사로 변화하면서 업무 외에 저를 힘들게 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의 변화입니다. 근무 시간 동안 긴장감 속에서 쉴 새 없는 움직임, 교대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등은 저에게는 몇 달이 지나도록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처음 몇 달간은 병원생활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집에 와서는 잠을 자기 바빴습니다. 몇 달 동안 이 생활이 반복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생각에 지치기도 했고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십년 이상 학교생활을 하다가 맞이한 새로운 환경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이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제가 근무하는 이곳에는 신규간호사 선생님이 여럿 오게 되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모습들을 보면 신규간호사로 보낸 지난 1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근무하기 전날부터 꾸꾸 앓기 시작하던, 응급실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고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던, 어떤 업무를 하든 혼자서 해내기에는 부담이 되고 확신이 없던, 잦은 실수로 한없이 위축되어 있던, 하지만 간단한 업무라도 처리하고 나면 내심 뿌듯해 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속상했던 마음이 녹아내리던 저의 모습들. 어디선가 지난날의 제 모습을 하고 있을 신규간호사 선생님.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규간호사의 시절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와 진실된 마음으로 간호사로서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길 바랍니다. 지금의 시간을 거쳐 훗날 신규간호사의 길을 걷게 될 후배간호사에게 여러분이 꿈꿔왔던 그리고 존경받는 선배간호사가 되어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을 모든 간호사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Care의 또 다른 이름 '간호사'

임성문 / 창원경상대학교병원

2016년 3월 14일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첫 직장이라는 점, 첫 사회생활이라는 점에서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새로 지어져 깔끔하고 웅장한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의 모습을 보니 나의 어깨를 더욱 으쓱하게 하였습니다. 설렘 가득 안고 첫 출근을 하였으나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긴장감이 실수를 유발하진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도한 긴장 때문인지 내과계 중환자실의 첫 기억은 차가웠습니다. 낮은 중환자실 온도와 파란 특수복 그리고 가만히 누워있는 환자와 기계 알람음 등이 저를 맞이하였습니다. 수간호사 선생님의 Orientation을 받으며 적응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나아지는 것 없이 아무것도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견디면 잘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 이게 간호사구나'라고 느낀 건 독립한 첫날이었습니다. 내가 방금 본 것, 한 것, 들은 것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고 머릿속은 하얗고 앞은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고비가 올 때마다 프리셉터 선생님께서 많이 다독여 주시고 동기들이 많이 도와주어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어차피 내가 할 일이고 도망갈 곳도 없다고 생각하면 힘이 나고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저의 간호사 생활에 고비가 왔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환자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감정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친할머니처럼 간호하였는데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더니 끝내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빠르게 일을 처리해야 했지만 감성적으로 많이 흔들려 일을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 날 만큼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환자에게 더 진심으로 간호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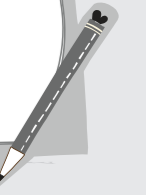
4개월 정도 일을 한 후 GUARD팀으로 로테이션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나서 첫 변화였습니다. GUARD팀은 병동 환자의 Vital Sign을 확인하여 Rounding을 하면서 중환자를 미리 찾아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게 응급처치를 하고 담당간호사와 상태를 확인하고 담당의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동의 중환자를 빨리 찾아내서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코드블루 상황 시 빠르게 출동하여 의사가 오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하고 상황을 적극적으로 마무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짧은 간호사 인생에서 첫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만 너무 컸습니다. 아직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뭘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업무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팀을 유지하기 위해 병원 내 전문심장소생술인 ACLS(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provider 과정 이수가 필요합니다. 학생 때 취업을 위해 과정을 이수했지만 좋은 기회였습니다. GUARD팀에서 일해 보니 ACLS 과정이 업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정지 상황 시 당황하지 않고 응급처치를 자신감 있고 신속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전문 의료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좀 더 발전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로테이션이 된 후 첫 코드블루 방송이 울렸습니다. 알림음을 듣고 깜짝 놀랐고 당황했고 긴장도 많이 되었습니다. 서둘러 응급가방을 가지고 병동으로 뛰어갔습니다. 사전에 연습하고 알고 있던 대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병동 간호사 선생님들과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처치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하여 환자는 ROSC되었고 중환자실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응급구조사 선생님과 병동 간호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이 되었기 때문에 환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간호사였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나서 느끼는 보람이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정이었고 내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간호사, 병원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간호사라는 것은 일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잘 적응해 가는 저의 모습에 뿌듯하고 대견했습니다.

어느 날은 외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이상하다고 환자를 봐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체험수기를 작성하면서 예전에 느꼈던 생각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힘들었을 때 어떻게 견뎠는지, 지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은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6개월이 지나고 그러다 하루하루 지나 1년이 지났습니다. 동기들, 선배, 취미 활동, 친구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 풀고 적응하다 보면 제가 놓쳤던 감정들, 학생 때 기대했던 저의 모습이 보이고, 제가 꿈꿔왔던 간호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 속에서 보람을 찾고 행복을 느끼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찾아가 환자를 사정했습니다. 심정지 상황은 아니었고 저혈압으로 인한 순간적인 속 증상으로 보여 의식 확인 후 빠르게 응급실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Vital Sign을 확인하였습니다. 환자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고 안정을 취한 후 병동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외래 선생님께서는 믿고 연락할 곳이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무언가를 해준 것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GUARD팀을 믿고 의지하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자존감도 생기고 일에 대한 책임감도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3교대 근무 형태로 인하여 불규칙적인 생활패턴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긴장감에 사로잡혀 근무해야 하는 환경에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체험수기를 작성하면서 예전에 느꼈던 생각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힘들었을 때 어떻게 견뎠는지, 지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은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6개월이 지나고 그러다 하루하루 지나 1년이 지났습니다. 동기들, 선배, 취미 활동, 친구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 풀고 적응하다 보면 제가 놓쳤던 감정들, 학생 때 기대했던 저의 모습이 보이고, 제가 꿈꿔왔던 간호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 속에서 보람을 찾고 행복을 느끼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경남간호사회 파이팅!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임성문, 박원빈 /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신속대응팀



2017년 9월 19일, 경상남도간호사회에서 주최하는 5년 이하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간호사 Cheer Up」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안동 소목화당과 농암종택에서 시행되었고, 간호정책 및 제도의 이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식제고 및 인식개선, 유대강화 및 사기진작을 통한 사직 및 이직 방지를 목적으로 갖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에 출발해서 부지런히 이동하여 12시에 안동 농암종택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로 소목화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낙동강 상류를 건너는데 수심이 깊진 않았지만 이끼가 끼어 직접 건너기는 위험하여 소목화당 대표님의 트랙터를 타고 물가를 건너갔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은 또 없었습니다.

트랙터를 타고 강을 건널 줄은 몰랐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작

은 나무 꽃 집이라는 뜻인 소목화당에 도착하여 대표님이 준비해 주신 유기농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고구마, 가지나물, 산채 비빔밥, 미역국 등을 먹었는데 자연을 가득 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연 바람과 산 공기, 시냇물을 마주하며 먹으니 소화도 잘되고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힐링되었습니다.

식후 이경옥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님의 최신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뉴스로만



스쳐 가며 접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 대해 무관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강 후 소목화당 대표님과 쿠키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다른 병원 선생님들과 조를 이뤄 다 같이 반죽하고 자기만의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난생처음 쿠키를 만들어 봐서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소목화당 옆은 메밀꽃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나가 사진을 찍고 이 순간을 기념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어울려 사진 찍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루 시간을 내어 평소와는 다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입사 후 앞만 보며 버텼지만 잠시나마 업무를 벗어나 여유를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하루지만 앞으로 간호사 일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에너지 보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로 재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나영(111병동) 최보경(ER) 박수빈(111병동) 박정원(NICU) / 창원경상대학교병원

2017년 9월 19일 경남간호사회에서 주관한 'Cheer Up'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경남간호사회에서 주관한 다른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던 친구의 긍정적인 반응에 더욱더 참가에 망설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안동에 가게 되어 출발하기 전부터 설레었습니다. 심지어 대학교 졸업 이후로 잘 만나지 못했던 친구와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어서 더욱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비록 버스에서 이동하느라 보낸 시간이 길었지만 버스 안에서 다른 병원의 선생님들과 이사님들의 자기소개 및 경험담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안동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여서 처음 본 것은 농암종택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한옥과 그 앞에 흐르는 낙동강이



어우러져 있어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마음이 한결 청량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종택 안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쉬웠지만 목적지인 소목화당으로 이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목화당으로 이동하는 길... 트랙터를 타고 강 위를 가로지르는 기분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소목화당에서 유명한 안동간고등어랑 산간의 나물로 색다른 식사를 마치고 사장님께서 직접 땅을 파서 만들었다는 땅굴 와인저장소에 모여 듣는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강의 또한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께서 직접 유기농으로 재배한 재료들로 만드는 쿠키 체험!! 다른 병원 선생님들과 같이 앉아 다양한 모양으로 쿠키를 만들고 체험장 앞의 하얀색으로 뒤덮인 메밀밭에서 다 함께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Cheer Up'이라는 주제에 맞게 새로운 에너지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 인력

김은희 /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한국의 병원 문화는 독특하다. 가족·지인 등의 병문안 문화가 있고, 가족 구성원 중 몇 사람이 보호자가 되어 병실에 상주하며 간병을 하거나, 가족이 환자를 돌볼 수 없을 경우에는 개별 알선을 통해 고용된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며 상주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 그렇다. 최근의 한 보고에 의하면, 한 해 동안 국민들이 간병비로 부담한 금액이 무려 2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는 한국의 간병인과 보호자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비공식적으로 메우고 있는 형국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들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지, 동시에 병원 내에서 간병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역시 불분명하게 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외국에서는 보기 드물다. 외국의 병원들은 대부분 의료진이 간호·간병을 책임지는 시스템이기에, 병원 내 비공식적 영역과 사각지대라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 전 메르스 감염 확산의 경우도 적은 수의 의료 인력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환자를 감당해야 하는 한국의 의료 현실, 질병 감염에 대한 정부와 병원의 관리대책 미흡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한국의 병원 문화와 간병문제, 의료 인력, 특히 간호 인력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연일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병원 내 간병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병원이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병원의 환자 수 대비 적정 의료 인력과 시설, 질병감염관리대책 메뉴얼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 또한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확대·실시하고자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착을 위하여 환자가 큰 부담 없이 적절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안전과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 경감,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적정한 간호 인력 지원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여 온전히 그 효과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돌리려면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시행하려면 전체 보건의료 인력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인력인 간호사의 확보가 환자 안전과 생명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에서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는 OECD 국가보다 3~4배나 많다. 우리나라의 임상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5.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9.8명)의 절반 수준이나 병원병상은 지난 10년간 2배가량 증가하여 간호사의 업무 과중으로 환자 안전에 대한 의료의 질 보장은 미흡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나라의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재원일수는 16.5일로 평균 8.3일인 OECD 회원국보다 2배 가까이 긴(OECD, 2015)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 간호 인력 수준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처럼 저임금, 고강도 노동 때문에 현장에서 간호 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간호사의 빈번한 이직과 사직, 간호직 이탈 및 미복귀, 의료서비스 질 저하라는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간호직에 대한 역할 부여는 전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 없이 설계하는 등 간호직의 저평가와 고용과 관련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어 간호 인력과 간호보조 인력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또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간호사의 경우,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가 일반병동간호사보다 높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간호사의 이직의도에는 현 근무부서에서의 만족도, 직무스트레스, 연봉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존 간호사들이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해 매우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무조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병원의 효과적인 간호사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간호계 전반의 문제인 인력 수급과 관련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우선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해당 병동의 간호사들의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더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하여 다양한 근무형태를 적용한 현 근무부서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과 보다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보이며, 정부 또한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사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보다 많은 숙고와 최선을 다해주어야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의 꿈이, 간호사가 오랫동안 열정을 가지고 임상현장에 머무름이 실현되리라 본다.

<참고자료>

1. 김소영, 김동원, 이선미(20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입원환자가 인식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 간호서비스 만족도 및 병원재이용 의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1), 321-331.
2. 김소은, 한지영(20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감정노동, 간호업무수행 및 소진. 간호행정학회지 23(3), 336-345.
3. 김진현, 김성재, 박은태, 정수용, 이은희(20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간호행정학회지, 23(3), 312-322.
4. 이수정(20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업무 인식, 수행도, 중요도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4), 247-253.
5. 윤호순, 임지영, 강민진(20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환자-간호사 인식도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3)
6. 이정민(201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비교 연구 :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社會科學研究, 33(1), 1-48.
7. 정수미, 윤숙희(20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간호만족도와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비교조사연구. 간호행정학회지, 23(3), 229-238.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제도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2013)
8. 조성현 외(20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인력 배치기준 개발. 23(2) 211-222.

제46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제26회 학술발표회 논문초록

논문 및 발표 2017. 5. 24(수) 14:00 / 마산대학교 50주년 기념관 3층 대강당

번호	구분	제목
1	양적연구	중환자실 욕창관련 경계압력과 예측요인 * 발표자: 신지선 (경상대학교병원)
2	양적연구	동영상을 이용한 정보제공이 뇌혈관 조영술 환자의 불안과 간호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 발표자: 강명주 (경상대학교병원)
3	양적연구	조현병 환자의 상태분노, 특성분노 및 정신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내재된 낙인에 미치는 영향 * 발표자: 이재운 (국립부곡병원)
4	양적연구	영상교육프로그램이 혈액투석환자의 투석 관련 지식, 자가간호 및 투석순응도에 미치는 효과 * 발표자: 이해경 (창원파티마병원)
5	사례연구	주간재활병동 프로그램을 통한 산재환자의 사례연구 * 발표자: 김선화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6	사례연구	신규간호사 교육 만족도 및 적응력 향상 방안 * 발표자: 최정훈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7	사례연구	재활병동 성인 환자의 의료용 접착관련 피부손상의 발생과 치유과정 * 발표자: 민지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제26회 학술발표회 논문초록 ① |

중환자실 욕창 관련 경계압력 예측요인

Factors Predicting the Interface Pressure related to Pressure Ulcer in Intensive Care Unit

신지선 / 경상대학교병원

본 연구는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욕창 호발부위의 경계압력을 측정하고 욕창위험요인, 피부상태와의 관계를 파악하며, 부위별로 경계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욕창예방 전략 수립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J시 소재 G대학병원의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표본의 크기는 G-power 3.1.3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05$, 효과크기 $d=.15$, 검정력 $1-\beta=.80$, 탈락률 5%를 고려하여 10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대상자 수는 100명이었다.

욕창위험요인, 피부상태와 경계압력간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70세 이상의 고령, 낮은 혈청알부민, 높은 체온, 평균혈압이 낮은 경우, 폐질환이 있는 경우, Braden Scale Score가 높은 경우 경계압력이 높았으며 체위에 따른 부위별 경계압력에의 영향요인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체위에 따라 욕창발생을 예측하는 경계압력의 cut off point를 정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없으므로 욕창 발생 환자를 대상으로 cut off point를 설정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여러 종류의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환자 군을 대상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자의 상태는 계속 변화되므로 효과적인 욕창관리를 위해서는 욕창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재사정이 필요하고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특성들을 반영한 욕창 위험 사정도구를 개발하고 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단기간 피부상태만 관찰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장기적인 관찰을 통하여 계속 변화하는 욕창위험요인과 경계압력 그리고 욕창발생과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동영상을 이용한 정보제공이 뇌혈관 조영술 환자의 불안과 간호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강명주 / 경상대학교병원

본 연구는 동영상을 이용한 정보제공이 뇌혈관 조영술 환자의 불안 및 간호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검사 전 정보제공이 대상자의 불안 감소 및 간호만족도 증가에 효과가 있는 간호중재임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시차 설계이다. 대상자간의 확산 효과를 막기 위하여 대조군(n=23)의 사전조사, 일반적인 교육, 사후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실험군(n=23)에게 사전조사, 약 6분에 걸쳐 동영상을 이용한 정보제공,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불안은 Spielberger(1975)의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STAI)를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고, 간호만족도는 La Monica 등(1986)이 개발한 41개 항목의 간호 만족도 척도 중 신현진(1999)이 수정, 보완한 14문항의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신경외과 수간호사 1인, 신경외과 10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 1인의 자문을 얻어 12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뇌혈관 조영술에 대한 동영상을 이용한 정보 제공을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불안점수가 더 많이 감소하였다($t=2.051, p<.05$).
- 2) 뇌혈관 조영술에 대한 동영상을 이용한 정보 제공을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간호만족도가 더 높았다($t=-4.705, p<.001$).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 뇌혈관 조영술 전 동영상을 이용한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불안 정도는 감소하였고 간호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 환자의 상태분노, 특성분노 및 정신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내재된 낙인에 미치는 영향

이재운, 신 은, 변현주, 주승미, 정옥희 / 국립부곡병원

본 연구는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한 조현병 환자 167명을 대상으로 내재된 낙인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예측요인을 파악하여 내재된 낙인의 감소를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내재된 낙인은 특성분노($r=.39, p<.001$), 상태분노($r=.20, p<.008$)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정신의료서비스 만족도($r=-.160, p=.039$)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중 조현병 환자의 특성분노는 내재된 낙인에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으며, 다음으로 정신의료서비스 만족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태분노는 유의하지 않아 17.1%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입원한 조현병 환자의 내재된 낙인의 감소를 위해서는 특성 분노의 감소 방안을 기반으로 정신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영상교육프로그램이 혈액투석환자의 투석관련 지식, 자가간호 및 투석순응도에 미치는 효과

안모니가, 이해경 / 창원파티마병원 인공신장실

본 연구는 영상교육프로그램이 혈액투석환자의 투석관련 지식, 자가간호 및 투석순응도(투석 간 체중변화, 혈청 내 칼륨과 인 수치, 투석 불이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C소제시의 종합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외래 환자 38명을 대상으로 실험군 19명, 대조군 19명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101분의 영상교육프로그램을 4주간 총 8회로 나누어 제공하였다. 영상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투석관련 지식과 자가간호 및 투석순응도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est, t-test로 가설검정은 Mann-Whitney U-test, 신뢰도 검사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영상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혈액투석에 대한 지식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지식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기각되었다($Z=1.302, p=.193$).

가설 2. “영상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가간호가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2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자가간호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기각되었다($Z=-.220, p=.885$).

가설 3. “영상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투석순응도가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3은 하위개념중 하나인 투석불이행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Z=2.688, p=.007$) 그 외 체중증가량과 혈중 칼륨(K), 인(P)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혈액투석환자를 위한 영상교육프로그램이 투석환자의 투석순응도 중 투석 불이행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투석순응도의 체중 변화, 혈중 칼륨과 인 그리고 지식과 자가간호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교육회수 및 실시기간의 부족, 투석 중의 교육 몰입도 저하, 실험군의 자가 간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영상교육프로그램이 투석환자의 일상생활과 신체적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투석환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비교적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본다.

주간재활병동 프로그램을 통한 산재환자의 사례연구

이명신, 이미연, 박보영, 심정순, 김선화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간호부

산업재해로 만성적인 신체증상이나 영구적인 기능 손실이 초래될 경우 이로 인한 고통은 근로자와 가족의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 기능의 손실은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동작도 제한적이어서 근로자가 재해 발생 이전의 가정, 직장, 사회에서 수행하던 역할이 제한되고 사회관계의 손실을 초래하여 재해자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특히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산재 근로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관계의 단절로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으며, 이들이 갖게 되는 부정적인 심리반응은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Jeong, Park, Koo, & Roh, 2003).

산재환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에 대해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곤란으로 요양 장기화와 직장 복귀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기 재활중재가 중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심리안정 기능을 강화하여 재활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산재병원의 재활간호사로서 급성기 치료가 끝난 산재환자에게 재활 팀과 함께 산재환자의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체적 기능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의 복귀에 필요한 심리적인 적응을 돕고자 시도하였다.

재활간호사는 주간재활 프로그램의 운영을 책임지며, 프로그램 내에서 훈련을 통하여 산재장애인의 최대한 신체, 심리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자가관리 능력을 함양해 주며, 그 외에 바른 자세유지, 피부 통합성관리, 배설 관리, 만성질환 관리, 약물복용 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한다. 본 연구는 산재환자로 본원 주간재활병동에 입원하여 2016년 1월~2016년 4월까지 주간재활병동 프로그램을 활용한 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대상자들의 신체적 장애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러 가지 집단운동, 영양상담, 인지치료, 놀이치료와 퍼즐수업, 원예수업, 재활

간호,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체와 마음의 활력을 되찾고 사회성을 회복하여 재활의지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볼 때 산재환자의 포괄적 재활에 있어 주간재활 병동 프로그램은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생각되며, 향후 각 재활기관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재활의 궁극적 목표인 산재환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간호사 교육만족도 및 적응력 향상 방안

최정훈 /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에게 교육만족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교육만족도와 업무적응력을 높이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남도 C시 1개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12개월 미만의 신규간호사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12개월 미만의 신규 재직 간호사 106명, 프리셉터 간호사 47명 편의 표본 추출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1차 조사(2016년 4월 4일에서 4월 8일) 결과에 따른 개선 활동을 제공 한 후 2차 조사(2016년 7월 7일에서 7월 11일), 3차 조사(2016년 9월 15일에서 9월 9일)를 하였다. 측정도구는 교육만족도 20문항, 업무 적응력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규간호사의 개인별 교육 습득 차이에 따른 교육 제공으로 교육 기간이 평균 21일에서 34일로 증가하였다.
2. 교육기간 적절성에서는 3월 신규간호사는 67% 보다 개선 활동을 제공 후 4,5,6월 신규간호사는 90% / 7,8월 신규간호사는 100%로 변화를 보였다.
3. 교육 만족도에서는 3월 신규간호사는 65% 보다 개선 활동을 제공 후 4,5,6월 신규간호사는 69% / 7,8월 신규간호사는 82%로 변화를 보였다.
4. 업무 적응력에서는 3월 신규간호사는 68% 보다 개선 활동을 제공 후 4,5,6월 신규간호사는 68% / 7,8월 신규간호사는 62%로 낮은 변화를 보였다.

이상으로 신규간호사에게 개인별 교육습득의 차이에 따른 교육 제공과 프리셉터, 관리자와 소통 활성화를 통해 교육만족도 및 업무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질 높

은 간호서비스와 신규간호사의 모집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주요어 : 신규간호사, 프리셉터, 교육 만족도, 업무 적응력

재활병동 성인 환자의 의료용 집착 관련 피부손상의 발생과 치유과정

민지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사 김명희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고성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조교수

본 연구는 임상에서 발생한 의료용 집착과 관련된 피부손상의 양상과 손상이 치유되는 과정을 관찰하여 보고함으로써 피부손상 환자들의 간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행된 사례연구이다.

2016년 10월 20일부터 재활병동에 입원하여 의료용 집착을 사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피부손상이 발생한 환자 10명의 피부손상부위의 손상양상을 확인하고 피부손상부위의 치유과정을 관찰하였고 마지막 대상자의 완치일은 2017년 2월 11일이었다.

연구기간동안 피부손상 10건 중 물리적 자극에 의한 손상이 8건 발생하여 전체의 80%를 차지하였다(표피 벗겨짐(Epidermal stripping) 4건, 장력 손상(Tension injury) 3건, 피부 찢어짐(Skin tear) 1건). 피부염은 의료용 집착의 화학적 자극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이 2건 발생하였다. 피부손상부위는 팔이 40%, 복부 및 가슴이 30%, 둔부가 20%, 다리가 10%였다. 적용목적은 말초정맥주사 드레싱이 30%, 욕창 예방 드레싱이 20%, 중심정맥관 드레싱이 10%, 수술부위 드레싱이 10%, 튜브드레싱이 10%, Foley 카테터 고정이 10%, 심전도 모니터가 10%였다. 치유기간은 손상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표피 벗겨짐은 치유기간이 평균 4.3일(±1.7)로 가장 짧았고 자극성접촉피부염은 8.2일(±2.8), 장력손상은 7.0일(±3.6)이었다. 피부가 찢어진 손상은 치유기간이 12일로 가장 길었다.

의료인은 의료용집착과 관련된 피부손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용 집착을 적절한 방법으로 부착하고 제거 시 주의하여 피부손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남간호인들의 동향

2017



2017년 본회 주요소식

제73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 22일(수) 풀만앰배서더 창원 2층 그랜드볼룸에서 대의원 및 내외빈 등 총 2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사, 국민건강의 수호자'를 주제로 개최하였다.

먼저 식전 축하공연으로 소프라노 삼성창원병원 김진아 간호사의 성악 솔로와 경남페스티벌앙상블의 성악 무대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는 이경옥 경상남도간호사회장의 개회사와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국민들에게 안전한 간호 제공과 간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간호정책 현안과 관련한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 추진과제'를 주제로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회의에서는 2016년도 사업시행결과 및 결산보고와 2017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 확정하였다. 총회 수상자는 합천군 환경위생과 이미경 회원이 대한간호협회장상, 진주한일병원 김현옥 간호부장과 통영서울병원 성명숙 간호사가 경상남도지사상,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이경은 교수가 경상남도간호사회장상을 수상하였다.

대한간호협회 제84회 정기 대의원총회 참석

대한간호협회 제84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간호사, 국민건강의 수호자'를 주제로 2월 22일~23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되어 본회 이경옥 회장을 비롯하여 대의원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2016년도 보건복지부 위탁 간호인



력취업교육센터 사업보고에 이어 제8차 장기사업계획안 및 2017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정관 개정안 등을 심의 확정했다.

회원역량개발사업 (본회 및 분회) 실시



본회 회원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체험교육 제공을 통하여 역량을 개발하고 소속감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회원역량개발사업으로 '도자기공예' 강좌 초급과정을 개설하여 상·하반기 총 35명이 참가하였으며, 본회의 요청으로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 권역에는 지원금 200만 원씩을 지원하여 하반기에 진주시, 사천시, 양산시에서 바리스타 과정, 도자기 공예과정을 개설하여 회원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다.

제46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제26회 학술발표회 개최

제46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으로 5월 24일 마산대학교 50주년 기념관에서 윤은숙 교육위원의 사회로 회원 1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경성대학교병원의 '중환자실 욕창위험 요인, 피부상



태 및 경계입력의 관계'를 비롯하여 2편과 국립부곡병원 1편, 창원파티마병원 1편으로 총 4편의 논문과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1편, 삼성창원병원 1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편으로 총 3편의 사례연구를 발표하여 전원 참가상을 수상했다.

올해에는 발표자와 회원들에게 논문작성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특강이 포함되어 본회 박형숙 제1부회장께서 '간호현장의 연구문제 탐색과 도출'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이 있었고,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계시는 남정자 교육위원장의 총평을 끝으로 폐회하였다.

간호사 워크숍-임원 및 회원 개최



본회와 각 분회 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시해 온 '경상남도간호사회 분회·분회 임원연수'를 올해부터 '간호사 워크숍-임원 및 회원'으로 하여 본회와 각 분회의 임원 뿐 아니라 일반 회원들이 함께 간호계의 최신정보 및 문제공유를 통하여 이해와 단합을 도모하고자 개최하였다.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임원 및 회원 50명이 참가하여 경남 남해군에서 개최하여 분

회 지원금 지급 및 본회의 '어르신 행복잔치' 개최 논의와 올해 실시 예정인 사업들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고 이경옥 회장의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독려와 통일간호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다음날인 20일은 독일마을 내 파독전시관 관람으로 간호 역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남해군 일대의 현장체험을 통하여 단합과 힐링하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본회인 남해군간호사회의 장소 선정 및 간식, 차량지원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2017 간호교육 질 향상 세미나 (간호대학·병원간호부) 개최



2017 간호교육 질 향상 세미나(간호대학·병원간호부)를 7월 20일(목) 풀만앰배서더 창원호텔 퍼스트하우스에서 간호대학 교수 및 병원 간호부서장 등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간호학과(대학)와 병원 간호부서 간의 원활한 소통과 정보교류를 통하여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간호사의 사직 및 이직방지로 인한 병원의 간호사 인력난과 수급 불균형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신규간호사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임상실습 방안'을 주제로 그룹토의 및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균형적인 인력관리와 신규간호사의 간호현장 적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추후 중소병원의 인력관리 사례와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 위한 인성교육 및 간호윤리 관련 프로그램을 건의하였다.

제15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경남대회 개최



경상남도는 경상남도간호사회와 공동으로 『제15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경남대회』를 8월 23일(수) 13:00 풀만 엠배서더 창원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였으며, 개회식에는 이경옥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종순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의 축사가 있었다.

이 대회는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한국존슨앤존슨, 마더케이, 이븐플로, 필립스아벤트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모유수유에 대한 중요성과 우수성을 강조하고 자연스럽게 엄마 젖을 먹이기 위한 여건 마련의 분위기 조성, 유아기 건강과 건강한 인격 형성 및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통하여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기여하고자 함이다.

지난 7월 11일 14:00부터 16:00까지 개월별 30명씩 순차순으로 접수받아 대회일 기준 생후 4~6개월(2017년 1월 24일~2017년 4월 23일)된 건강한 모유수유아 90명(4개월 30명, 5개월 30명, 6개월 30명)이 참가하였으며 의사검진, 발달검사, 모야애착 및 건강지수 등 심사를 거쳐 시상하였다.

시상은 경상남도지사상(5개월 안태현), 대한간호협회장상(6개월 권우현),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상(4개월 최서연) 각 1명에게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하고, 아름답게 9명에게 상장과 상금 25만원, 보람상·행복상 등 66명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그리고 11명에게는 협찬사로부터 받은 이븐플로상·존슨앤존슨상·필립스아벤트 모유수유상을 수여하였다.

심사집계하는 동안에는 감성레크레이션 및 50명에게

행운상과 엄마사랑모유사랑 퀴즈상으로 상품을 지급하고 아기와 가족들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으며, 모유수유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코너를 운영하여 육아 및 모유수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 모유수유 홍보부스에는 리플렛을 비치하여 배포하였고, 그 외 네일아트, 페이스 페인팅 부스를 만들어 더욱 풍성한 대회가 되었다.

2017년도 간호행정자 세미나 (순회 보수교육 프로그램) 실시



간호관리자 및 중간관리자와 예비관리자들에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간호행정자 세미나가 9월 7일 호텔인터내셔널 신관 5층 그랜드볼룸에서 총 123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올해는 '간호와 의사소통의 감을 잡아'란 주제로, 순회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립암센터 이란 수간호사의 '직장생활에서의 자기 관리', 경희의료원 서현기 병동간호팀장의 '간호현장 커뮤니케이션', 센토스 박보영 대표의 '스트레스 극복하기와 행복소통의 실제' 순서로 강의가 이어졌는데 병원 간호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회원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다.

2017년도 간호사 Cheer Up

경상남도간호사회에서는 2017년도 본회 회원등록 5년 이하의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현장체험수기를 공모하여 당선자에 한하여 같이 동행하고 싶은 동료, 선배회 회원 1명과 함께 참가하는 행사를 주관하여 경상남도간호



사회에 대한 인식제고와 회원역량강화교육 및 회원들의 유대강화와 사기진작을 통하여 간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획하였다.

총 50명이 참석하여 9월 19일(화) 경상북도 안동시 소목화당에서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본회의 경상남도간호사회 이경옥 회장님, 성명숙 홍보편집위원장님, 권은시 홍보편집위원님이 함께하여 후배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가자를 대상으로 「최근 보건 의료 이슈」를 주제로 이경옥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님의 강연 및 본회 활동 보고 후 쿠키 만들기 체험과 메밀밭 트레킹 및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동기간, 선후배간 이해하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2017년 요양병원 간호부 워크숍 개최



10월 25일(수) 호텔인터내셔널 본관 2층 로망스홀에서 개최한 요양병원 워크숍은 경남도내 요양병원 간호부간의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을 위하여 요양병원의 간호업무상 요구도가 높은 주제로 강의와 사례발표로 개최하였으며 해마다 관심과 참석률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66명이 참석하여 '2주기 인증 기준과 핵심대비사항'을 주제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교육센터 정춘화 인증컨설턴트의 강의와 진성희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간호부장의 2주기 인증 관련 사례발표로 진행되었다.

2017 간호정책아카데미 개최



간호 또는 보건의료 정책 교육 및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행 간호 관련 법·제도 현황에 대한 논의 및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여 11월 24일(목) 풀만엠배서더 창원호텔 2층 빌라드룸에서 내빈, 임원, 간호부서장, 간호대학학과장, 회원, 간호대학생 등 9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완수 국회의원을 모시고 개최하였다.

'간호계의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민생경제와 국가안보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말씀과 함께 국민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한 전문 간호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간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협조를 약속하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2017 초청강연회 개최



회원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교육을 제공하여 소속감과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12월 14일(목) 풀만앰배서더 창원 2층 그랜드볼룸에서 내빈, 임원, 증경회장, 분회장 및 총무, 간호부서장, 간호대학장(학과장), 회원 등 1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록도 성당에 계시는 김연준 신부를 모시고 개최하였다.

특히 다큐멘터리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기획, 제작하신 김연준 신부께서는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생각하는 인권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간호사로서 일생을 헌신하신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진정한 봉사과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 참석자 회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 주셨으며 그분들을 위한 후원활동에도 동참을 하는 등 한 해를 보내는 따뜻한 자리가 되었다.

보수교육 지정기관 실무자 간담회



보수교육 지정기관 실무자 간담회가 보수교육 실시 분회 및 실시 기관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2월 20일(수) 개최되었다.

이경옥 회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보수교육 실시 결과보고 및 2018년 대한간호협회 교육실시 예정안에 대한 안내에 이어,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 관련 현안보고가 있었으며 한 해 동안 수고한 실무담당자들을 위하여 특별체험교육이 생활 도자기공예가 미산도예에서 이루어졌다.

보수교육 실시 후 기관별 평가 및 개선사항으로는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자의 증가에 따른 오프라인 교육실시의 어려움과 중앙회 교육국의 프로그램 개발 및 내용 변화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이웃돕기사업



매년 각 지역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선정하여 성금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고성군, 밀양시, 사천시, 함안군, 합천군간호사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선정되어 이경옥 회장과 해당 분회장 및 임원들이 대상자들을 방문하여 따뜻한 마음과 함께 총 270만원을 전달하였다.

2017년 분회 주요소식

거제시간호사회

제7회 거제시간호사회 정기총회



거제시간호사회는 4월 12일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대강당에서 경남간호사회 회장(이경옥), 거제시여성협의회회장을 비롯한 종합병원간호부장 등 130여 명 간호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사 '국민건강의 수호자'를 주제로 제7회 거제시간호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5대 회장으로 신순아(거제시보건소)를 선출했다. 신순아 신임회장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조직확대에 힘써,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거제시간호사회는 2008년 창립하여 등록회원이 550여 명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과 지역사회 간호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제9회 거제시간호사회 간호봉사 실시



거제시간호사회(회장 신순아) 주관으로 9월 16일(토) 제

9회 거제시간호사회 간호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둔덕면 하둔, 솔역, 녹산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에 대한 교육과 노년의 건강 상담 및 혈압 측정, 혈당측정을 했다. 건강 상담으로는 건강한 식생활, 고혈압 예방 생활수칙, 당뇨병 예방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 또한 가벼운 찰과상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구급함과 파스를 지급했다. 신순아 거제시간호사회 회장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간호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간호사회

거창군간호사회 제8회 정기총회



3월 16일(목) 경남도립거창대학에서 대한간호협회 경남지부 거창군간호사회 제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경남간호사회 이경옥 회장, 거창군의회 김항란 의원 등 여러 내·외빈이 참석하여 총회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제3회 거창군간호사회 단합체육대회



거창군간호사회(회장 손계순)는 4월 15일(토) 간호사회 회원 및 가족 40여 명과 함께 거창중학교 체육관에서 제3회 회원 단합 체육대회를 가졌다. 그동안 병·의원과 보건기관, 학교 등에서 거창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고생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함께 한 자녀들과 두 팀으로 나누어 4인 1조 발 묶고 이어달리기, 팔씨름 대회, 원판 공 튀기기, 닭싸움, 공 나르기 등 5가지 종목으로 열띤 응원과 함께 체육대회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로 간호사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며, 올해 거창군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하며, 내년의 체육대회를 기대하며 행사를 마쳤다.

거창군 어르신 행복잔치



거창군간호사회는 “노년을 더 젊고 활기차게”라는 주제로 6월 17일(토) 경남도립거창대학 대강당에서 어르신 행복잔치 사업을 실시하였다. 거창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날 행사에 양동인 거창군수, 김종두 거창군의회 의장, 표주숙 군의원, 경남간호사회 이경옥 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어르신 행복잔치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사업과 치매예방 활동을 격려해 주었다. 행복잔치 내용으로는 이경옥 회장의 “노년기의 올바른 약물복용”이란 특강과 함께 장남서 교수의 “치매예방을 위한 웃음치료”, 신원면 산돌개비팀의 스포츠 댄스 공연, 색소폰 연주, 초청 가수 등의 공연으로 3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노년의 삶에 활력을 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되었으며 참여하신 어르신에게는 기초건강측정(혈압, 혈당 등)과 혈당기 등 건강관련 기념품도 지급하였다.

사과마라톤대회 건강측정

거창군간호사회 회원 및 간호학과 학생 25명은 10월 15일(일) 거창사과마라톤대회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혈압계, 혈당기, 에어파스, 음료제공 등 봉사를 하였다.

고성군간호사회

고성군(드림스타트)와 업무협약 체결



고성군간호사회가 8월 23일 고성군청 부군수실에서 이향래 부군수, 행복나눔과장, 고성군간호사회 회장, 부회장, 총무 등 10여 명이 참석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 아동들을 후원하기로 하였다.

연말 불우이웃돕기



고성군간호사회(회장 강미숙)는 지난 12월 15일 고성군 거주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20명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였다.

김해시간호사회

김해시간호사회 회장 이·취임식 거행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강선희 과장이 김해시간호사회 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해시간호사회는 4월 19일 JW웨딩컨벤션센터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강선희 과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병원, 대학 소속 간호



사가 아니라 보건소 공무원이 김해시간호사회 회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해에는 1,700명에 이르는 간호사가 병원, 보건소, 학교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1,200여 명이 간호사회에 소속돼 있다. 이 중 90% 가량은 병원에서, 10%는 초·중·고나 보건소, 대학 등에서 활동한다.

강 신임회장은 “보건소에서 지역의 보건증진 업무를 총괄한 경험을 2년의 회장 임기 동안 활용할 생각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유관기관·의료단체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간호사회를 이끌겠다. 대한간협에서 간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시간호사회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가 전문적인 간호업무를 책임지는 전문인력이라는 인식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간호사 업무가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문분야라는 인식이 정립됐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사 놓는 간호사 정도만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 간호사를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서비스 사업 업무협약 체결



김해시간호사회는 5월 12일 시청 사업소동 회의실에서 김해시, 어린이집 40개소와 방문간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문간호서비스사업은 김해시간호사회 소속 간호사들

이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100인 이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달에 한번 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응급사항 대처법 및 아동학대 예방관련 교육, 각종 전염성 질환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한 이상 징후 조기발견 및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필요한 건강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다 질 높은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 기금전달



김해시간호사회(회장 강선희)는 9월 5일 김해YMCA 등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 추진 중인 ‘김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기금 100만원을 추진위원회에 전달하고, 나비회원 모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여성단체의 하나인 김해시간호사회도 이에 동참하는 의미로 기금 마련에 앞장섰다.

남해군간호사회

어르신 행복잔치

남해군간호사회(회장 정현주)에서는 9월 9일 남해군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을 모시고 어르신 행복잔치를 개최하였다. 이날 어르신 행복잔치는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고취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련



했다. 남해군간호사회 회원들이 손수 간식과 선물을 준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하였고, 지역문화동호인들의 한국무용, 가요, 댄스, 아코디언, 색소폰 연주, 힐링댄스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보건소 건강 홍보관을 운영하여 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생활 개선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올해로 창립 4년째를 맞이하는 남해군간호사회는 지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굿은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단체로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이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 및 봉사활동 전개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남해군 부군수 김금조, 남해군의회 박득주 의장님 외 의원님, 도의원 류경완, 남해군여성단체 박명엽 회장님, 경남간호사회 이경옥 회장님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추석맞이 저소득층 봉사활동 전개



남해군간호사회(회장 정현주)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정 3곳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물품을

지원하였다. 조손가정과 치매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생필품과 과일을 전달하고 환경정비와 어려움을 상담하였다.

남해군간호사회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12월 19일 터미널 5층 뷔페청에서 박영일 군수, 최영근 보건소장, 박명엽 여성단체회장, 봉사단체청초회장, 부회장과 회원 70여 명이 참석하여 남해군간호사회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2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든든하게 역할을 다해 힘쓴 정현주 회장과 임원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냈으며 뒤를 이은 정영돌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들의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과 지역의 건강 파수꾼이 되기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였다.

밀양시간호사회

초청강연회 개최



밀양시간호사회(회장 장미희)는 12월 2일 밀양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경상남도간호사회 이경옥 회장 및 회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복(모유&성클리닉 원장) 강사를 초청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성"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공공연한 이슈로 떠오르는 작금의 상황으로 볼 때 건강하고 행복한 성을 위한 상담 역시 간호중재가 필요한 부분이며, 이번 강연회를 통하여 밀양시 간호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간호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경남간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질병이나 기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



상자(청도면 고법)를 선정하여 5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훈훈한 온정의 손길도 잊지 않았다. 강연 후에는 식사와 영화관람 등 회원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일선에서 지친 심신을 힐링하는 기회를 가졌다. 밀양시간호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건강에 더욱 이바지 하기위해 간호사 개개인의 역량강화 및 간호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사천시간호사회

천사회 봉사활동 실시



사천시간호사회는 2015년도 부터 이어지는 천사회 봉사활동을 올해는 5회 실시하였다. 소외되고 외로운 지역주민들과 문화를 공유하며 혈압측정 및 당뇨측정 뿐만 아니라 신체 관련 건강상담을 통한 예방간호를 제공하며, 대상자들의 행복감과 자존감을 높여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사천시간호사회를 대외적으로 알리며, 회원 상호간의 단합을 도모한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입소환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간호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줄수 있는 기

회제공으로써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의미를 두고 있다.

핸드드립 바리스타 자격과정 실시



사천시간호사회는 회원들간의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교육기회를 접하여 개인역량 사기진작 및 소속감에 대한 자부심을 부여하고자 노찬용(평생직업개발원 경남지부 지부장) 강사를 초빙해 홈플러스 삼천포점 문화센터에서 총 12회(9월~11월) 매주 목요일 저녁 18:30~20:00까지 핸드드립 바리스타 자격과정을 진행했다. 수강회원은 15명이며, 바리스타 2급자격 합격자는 12명(3명 기권)이다.

양산시간호사회

양산시간호사회 정기총회 개최



양산시간호사회(회장 이영순)는 지난 4월 12일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009년 창립된 양산시간호사회는 현재 1,827명 양산지역 등록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간호의 질 향상과 봉사활동, 회원의 권익 옹호 및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보수교육과 특강 개최, 간호대학생 장학금 지급과 및 불우이웃 돕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개최식에서는 조순연 경상남도간호사회 제2부회장, 나동연 양산시장, 심경숙 양산시의원(간호사), 김현민 양산시보건소장, 황선경 부산대학교 간호대학장을 비롯한 내빈이 참석했다.

양산 유채꽃 향연 환경미화 실시

양산시간호사회는 4월 21일 '2017 양산 유채꽃 향연'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석한 사람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행사장 인근 환경미화를 실시하였다. 양산시에서는 유채꽃 향연이 펼쳐지는 양산천 둔치 일대에서 '양산 유채꽃 향연'을 개최하였다. 양산시간호사회(회장 이영순)는 2009년 창립 이후 양산시 거주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의료용품 지원, 장학금 지급, 특강 개최 등의 간호봉사 사업을 꾸준히 지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간호봉사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우수학생에 장학금 전달



양산시간호사회는 9월 29일 양산시 소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우수학생 3명에게 각각 3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양산시간호사회는 학교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이우림, 부산대학교 장원경, 영산대학교 김세희 학생은 각 학교 관계자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양산시에는 부산대 간호대학, 양산대 양산캠퍼스 보건의료대학 간호학과, 동원과학기술대 간호학과 등 3개 학교에서 간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2017년 회원역량개발 교육 실시

양산시간호사회는 경상남도간호사회가 주최하는 회원역량개발교육을 유치, 주관하여 9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주 과정으로 '삼감도예교실'을 개최하였다. 양산시간호사회 소속 회원 15명이 참석하였으며,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은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받고, 전통문화 향유능력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양산시간호사회 이영순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등 양산시간호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간호사회

회원역량개발 사업



진주시간호사회(회장 조순연)는 9월 5일부터 매주 2회(화, 금) 4주(총8회 24시간) 동안 BS바리스타 커피학원에서 "맛과 멋 그리고 향기를 만드는 나도 바리스타" 강좌를 교육받았다. 진주시 10개 기관 25명 회원들은 흥성빈 강사의 지도하에 맛과 향이 좋은 커피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즐길수 있는 노하우를 배워 바리스타에 도전하느라고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두 귀는 쫄긋, 총명하 두 눈에서는 하루종일 근무하느라 쌓인 피로를 찾아 볼 수 없었다. 행복의 에너지로 강의실은 시간가는 줄 모른 채 열심히 임했다.

회원 친목도모 체육대회

진주시간호사회는 5월 13일 진주시 초전동 실내체육관



에서 이창희 시장, 박정자 도의원, 양해영 도의원, 진주시 보건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단합체육대회를 개최했다. FUN 이벤트의 사회로 흥팀, 백팀으로 나누어서 500명 회원들은 팀승리를 위해서 불꽃 튀는 토요일 오후를 보냈다. 두 팀의 자녀들 코너에서 응원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손에 손잡고 '만남'을 합창하면서 멋지게 마무리했다.

창녕군간호사회

부곡온천 마라톤 행사 참여

창녕군간호사회 회장 신은 외 9명은 3월 19일(일) 부곡온천마라톤 행사장에서 회원 건강증진 활동과 지역주민과 화합소통에 힘썼다.

『부곡온천축제』 정신건강 상담 및 홍보

창녕군간호사회는 4월 2일(일) 부곡온천 행사장에서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 Z코드 홍보 및 팸플릿을 배포했다. 지역축제 참여를 통한 정신질환 편견해소와 지역주민과의 유대감 형성, 정신질환이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대처해야 하는 문제임을 전파했다.

『남지유채축제』 정신건강 상담 및 홍보

창녕군간호사회는 4월 14일(금) 남지 유채축제 행사장에서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 Z코드 홍보 및 팸플릿 배포 및 지역축제 참여를 통한 정신질환 편견해소와 지역주민과의 유대감 형성에 힘썼다.

상반기 봉사활동



창녕군간호사회는 5월 4일(목) 부곡온천 요양원에서 상반기 봉사활동을 가졌다.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오락활동 및 식사보조, 봉사물품(간식)을 전달했다. 소외된 어르신들과 사랑나눔실천,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회원 단합대회

창녕군간호사회 회장 신은 외 45명은 5월 14일(일) 남지개비리길에서 회원 간의 팀워크활동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회원단합대회를 가졌다.

하반기 봉사활동

창녕군간호사회는 9월 27일(수) 창녕군 계성면에 있는 노블카운티요양원에서 하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신체활동 및 오락, 미술치료프로그램 및 봉사물품을 전달했다. 소외된 어르신들과 사랑나눔실천,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초청특강



창녕군간호사회는 12월 7일(목) 국립부곡병원 1층 대회의실에서 회장 신은 외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사의 자기돌봄 『마음건강챙김』을 주제로 초청특강을 실시했다. '간호사로서 뿐만 아니라 부모, 직장인, 일반인으로서 삶의 행복을 추구, 구현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와 우리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즐기고, 사랑하는 것 등은 육체적 건강을 이루기 위해 균형잡힌 식사, 규칙적 식사, 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건강을 얻는 원론적인 방법이지만 얼마만큼 실천하느냐의 문제이다라는 내용으로 흡입력 있고 열정적인 특강시간을 가졌다.

창원시간호사회

지역 야구단(NC다이노스) 성장 응원 및 회원 친목도모



창원시간호사회(회장 이갑욱) 회원(창원 97명 / 마산 92명 / 진해 11명) 총 200명은 9월 14일(목) 마산야구장에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NC다이노스 구단"의 성장을 응원함과 동시에, 창원시간호사회 소속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저소득층 세쌍둥이 가정 후원사업

창원시간호사회는 9월 29일(금) 세쌍둥이 보연이 엄마 추석맞이 후원금(현금 20만원)을 지원했다. "세쌍둥이 지원사업"은 2008년 창원시 최초로 세쌍둥이(딸)를 출산한 일용직으로 생계가 매우 어려운 가정에게 매년 설,

추석을 맞이하여 9년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간호사회가 되는데 앞장서고 있다.

창원시간호사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물품기증 행사



창원시간호사회는 9월 23일(토) 아름다운가게(창원 옹호점)에서 회원 총 50명 창원시간호사회 이사 10명, 병원·간호대학 관계자 20명, 간호학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300점, 구매고객수 278명, 판매건수 945건, 4,787,364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수익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나눔과 순환 그리고 참여를 통하여 낡거나 오래 된 물건을 기증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며, 다시 필요한 물건을 다시 사가는 자원의 순환 활동을 통하여 부의 편중과 빈부격차에 대해 서로가 이해하고 나누는 활동을 함으로써, 자원의 더 긴 순환과 유통을 실현하고자 한다.

하동군간호사회

하동군간호사회 정기총회



하동군간호사회가 6월 29일 하동 물꽃정원펜션에서 총회를 하여 제4대 임인숙 회장을 선출하게 되었으며 내빈으로 하수자 하동군수 사모, 이갑재 도의원, 이천형 의사회 회장, 경상남도간호사회 이경옥 회장과 회원 70여 명이 참석하게 되었다.

임인숙 회장은 인력난에 시급한 중소병원과 농어촌병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인한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 나가도록 중압과 소통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며 이경옥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의 "천직인 간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지역민을 위한 의료 혜택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으로 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를 통하여 하동군간호사회가 더욱더 지역민을 위하여 의료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다짐하였다.

함안군간호사회

함안군간호사회 창립총회



함안군간호사회는 3월 27일 함안군보건소 대강당에서 차정섭 함안군수, 도·군의원, 이경옥 경상남도간호사회장, 관내 사회단체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1부, 2부로 진행된 행사에는 회원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상영, 축하공연, 케이크 커팅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어 행사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홍은주 함안군간호사회 창립준비위원장의 "간호사의 전문성과 열정을 더해 군민이 행복하고 보다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역할을 찾아 나가겠다"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경옥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의 "지역사회

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민들의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과 경남간호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의 성장을 바란다"는 격려사와 함안군수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축사가 이어졌고, 창립총회에서 함안군간호사회 초대회장은 홍은주 함안군보건소 예방의약 담당계장이 선출되었으며 현재 110여 명의 간호사들이 함안군에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간호위상 확립을 위한 대민건강교육 홍보활동을 비롯해 간호업무발전, 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후생, 지역사회발전과 국민보건향상 등을 위한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합천군간호사회

합천군간호사회 정기총회



합천군간호사회는 5월 30일 제3회 합천군간호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대 이미경(합천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계장) 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보건소, 병원, 요양원, 보건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합천요양병원 양덕숙 간호부장을 선두로 분야별 대표간호사의 인사를 겸한 근무처 소개를 통해 모든 회원들이 소통과 공감으로 한마음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

편집자 레터



‘간호’는 관계에 대한 얘기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것은 삶이고 간호는 다양한 우리네 삶 속에서 항상 같이하고 있다. 2017년 『경남간호』 통권23호에서는 간호의 이름과 관련된 여러 관계의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다. 진실되고 정직한 신뢰할 만한 전문직업인 간호사가 올바르게 설 때 세상의 등불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남간호』를 통해 경남 간호인의 사계절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편집을 마무리하는 날 탈고를 축하라도 하듯이 눈이 훑날린다.

* * * * *

강변 대숲에 눈 내린다. 남부지방에 흔치 않은 눈 때문에 온다는 사람들은 못 오고 평평 눈 내린다. 오롯이 『경남간호』에 빠질 수 있어서 이런 시간이 좋다.

겨울을 지나오면서 매만진 여러 권 중 마지막 책, 마지막이란 느낌에 설렌다. 갑자기 가벼워지는 눈! 그러나 더 깊숙이 보아야 할 간호 전문인의 색깔이 있는 우리의 『경남간호』! 부디 보는 이들의 눈에서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 * * * *

2018년도에도 간호인들은 또한 치열하게 아름다운 우리들 삶 속에서 공존해 나갈 것이다. 『경남간호』 또한 아름다운 삶을 돌보는 간호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담아낼 것이다.

* 편집위원 | 성명숙, 강선희, 권은시, 김은희, 손경희, 윤덕점, 이인숙, 김영란(사진)



서로의 벽을 허물고 소통할 수 있는 힐링과 화합의 장 2018년 『간호사 Cheer Up』 개최

경상남도간호사회는 2018년도 본회 회원등록 5년 이하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현장체험수기를 공모하여 당선자에 한하여 같이 동행하고 싶은 동료, 선배 회원 1명과 함께 참가하는 『간호사 Cheer Up』을 개최할 예정이다. 본회에 대한 의식제고와 회원들의 역량과 유대를 강화하여 간호사로서 자기진작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2016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일상에서 벗어나 선배가 동행하면서 서로의 벽을 허물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나눔의 시간을 마련하여 힐링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 * 2018년 7월 | 간호사 현장체험수기 모집공모
- * 2018년 8월 | 당선자 본회 홈페이지 공지
- * 2018년 9월~10월 중 개최 예정

